

미국 대북방송 연구 :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 늘품플러스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 이원웅.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9-06)

ISBN 978-89-8479-503-7 93340 : 비매품

미국 외교 정책 [美國外交政策]
대북 방송 [對北放送]
대북 정책 [對北政策]

349.42011-KDC4
327.7305193-DDC21

CIP2009003234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II. 미국 국제홍보: 이념, 전략, 제도	5
1. 이념	9
2. 전략	19
3. 조직	26
III. 대북방송망의 운용실태: VOA와 RFA	33
IV. 대북방송 구성 분석	39
1. VOA	41
2. RFA	44
V. 우리나라 대북방송 및 대북홍보전략을 위한 제언	53

VI. 참고자료	59
참고문헌	10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5

표·그림 목차

<표 II-1> BBG 2008 회계연도 예산	29
<표 II-2> RFA 방송지역 언어 및 방송시간	31
<표 IV-1> 탈북자/북한인권 관련 프레임	45
<표 IV-2> RFA 자유아시아방송 편성표-1	47
<표 IV-3> RFA 자유아시아방송 편성표-2	48
<표 IV-4> RFA 자유아시아방송 편성표-3	49
<표 IV-5>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순서에 따른 기사소재 ...	50
<그림 II-1> 미국 국제홍보방송 조직구조	28

I. 들어가는 말



“철의 장막은 방음벽이 아니다”

1960년대 헝가리 젊은 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에 저항하는 신세대문화를 유도했던 자유유럽방송(RFE) 록음악 디스크자키 에보크씨가 헝가리 민주화운동에 미친 방송의 영향력을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¹ 미국의 국제홍보방송은 그 역사가 유럽 강대국에 비해 그다지 길지 않다. 그러나 냉전시기 트루먼정권과 아이젠하워정권은 구소련과 동구공산국가에 대해서 방송을 이용한 심리전과 문화적 침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² 동구권 공산국가를 겨냥한 자유유럽방송(RFE)과 구소련을 겨냥한 ‘자유방송(Radio Liberty)’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과 더불어 소위 미국의 전략적 국제홍보(public diplomacy)의 생생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³

원거리 송출이 가능한 단파 방송은 상대국의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홍보의 주요한 매체수단이다. “연성과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이익 확장에 있어서 정보 및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한 나이 교수는 RFE와 Radio Liberty 등 냉전시기 미국의 국제홍보방송의 역할을 중시하고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의 보이지 않는 조역으로 평가하고 있다.⁴

¹- Arch Puddington, *Broadcasting Freedom: The Cold War Triumph of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0), p. 141.

²- Walter L. Hixson, *Parting the Curtain: Propaganda, Culture, and the Cold War, 1945-1961* (Palgrave Macmillan, 1997); Kenneth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of Kansas, 2006) 참조.

³- ‘public diplomacy’는 국내에서 공공외교(公共外交)로 번역소개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국 국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점, 전통적인 외교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점에서 ‘국제홍보’로 번역하기로 한다.

⁴-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현재 미국은 북한을 겨냥하여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 두 개의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방송채널은 과거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였던 미국의 국제홍보 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다양한 뉴스와 방송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국제방송기관은 전략적으로 차별성이 있으며 역할분담도 다르다. RFE 국장을 역임한 어반은 VOA의 목적은 미국을 ‘투사’하는 것으로 미국외교의 또 다른 수단인 반면, 두 개의 ‘자유방송’은 소련과 소련이 지배하는 지역의 이익과 문화, 종교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으로 미국이 후원하는 현지 ‘대체방송(surrogate)’으로 규정한다.⁵

두 방송기관 모두 최근 대북 방송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어를 포함하여 모두 9개 국어로 대상지역 뉴스보도 및 미국내 뉴스보도를 송출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96년 창설되었다. RFA 한국어 방송(대북방송)은 1997년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전파송출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방송역량이 확대되고 있다.

1997년 3월 RFA가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하자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미국이 도발적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의 조선말 방송을 불어대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압살정책을 버리지 않고 더욱 노골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또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RFA를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라고 규정하며 주민들에게 각종 부르주아 사상의 유입을 철저히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RFA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북방송에 대

York: Public Affairs, 2004), p. 102.

⁵-George R. Urban, *Radio Free Europe and the Pursuit of Democracy* (Yale University Press, 1997), ix.

I
II
III
IV
V
VI

한 전파방해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2년 개설되어 연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전세계 45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VOA도 대북방송 역량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대북방송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이고 강한 반발은 역으로 북한이 동방송이 폐쇄된 자국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북방송 청취율이 향상되고 있다는 보도는 이러한 북한의 두려움을 상징한다.

향후 미국의 대북방송이 동구권 사례처럼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개의 방송내용이 구성되는 이념적 원칙과 정치적 메시지는 어떠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메시지와 문화적 영향력 확대는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미국의 대북방송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홍보(방송)의 일환이다. 본 논문은 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의 국제홍보 이론과 현 실태를 검토한 뒤,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변하는 두 개의 방송망이 운영되는 실태와 조직, 전략 및 콘텐츠를 분석하고 방송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려고 한다. 특히 RFA의 전략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전례가 되는 RFE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북홍보 전략에 대한 제언을 결론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로서 2009년 5월 RFE 및 VOA 사업을 지원하는 데 대한 미 하원 국제관계 청문회 기록을 번역, 첨부하여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보다 분명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미국 국제홍보: 이념, 전략, 제도



국제홍보란 “타국 국민들에게 국가의 이념, 제도, 문화, 국가목표 및 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실행하는 (정부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정의된다.⁶ 국제홍보 개념은 전시 심리전 개념과 정치선전(propaganda) 개념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으로 특히 다양한 문화적 접촉이 활성화된 정보화시대에는 자국의 이익수호 및 확장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홍보는 국제커뮤니케이션, 대중커뮤니케이션, 평시선전(peacetime propaganda) 등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⁷

1955년 미국홍보처(US Information Agency)는 “나의 미국(My America)”이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문화적 다양성, 정치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유동성을 강조하면서 맥카시즘이나 냉전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미국의 국제홍보는 ‘역동적인 자유사회의 기본요소’를 강조하면서 미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조직적인 방어에 나섰다. 냉전시기 미국은 국제홍보를 자본주의 체제수호와 공산체제 붕괴를 위한 기반다지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⁸ 이처럼 국제홍보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정학적, 경제적 및 군사적 의미로 한정지우지 않고 자유와 진보, 풍요라는 문화적 이미지로 확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안보는 국경을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국의 삶의 방식과 문화, 가치

⁶- Jarol B. Manheim, *Strategic Public Diplomac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Evolution of Influ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5. 한편 국제홍보의 주체를 기업, NGO를 포함한 다원주의로 해석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p. 90~98.

⁷- Kenneth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of Kansas, 2006), p. 374 참조.

⁸- Laura A. Belmonte, *Selling the American Way: U.S. Propaganda and the Cold Wa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8), p. 3.

를 상대국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상대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문화적 침투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치밀하게 구성된 문화자원과 정보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레이전 시기 미국은 냉전 막바지 국제홍보를 위해 위성방송 네트워크(Worldnet)를 활용하여 대소련 홍보전에 나섰다. USIA는 당시 1만명의 인력과 20억달러의 연간 예산을 사용하던 세계 최대규모의 ‘심리전 부대’였다.⁹ 소련의 국민적 자부심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미국은 우주방어전략(Star War Strategy)을 홍보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능력을 과대포장하였다. 이러한 선전홍보 전략은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소련의 대미국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전략적 궁지로 몰아넣었다. 또 아프리카에 창궐하는 에이즈(AIDS)는 미국이 퍼뜨린 것이라는 소련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치밀한 역정보공작(disinformation)을 수행하기도 하였다.¹⁰

그러나 전체적으로 냉전시기 이후 미국의 국제홍보(방송)는 냉전시기 소련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제방송, 나치독일을 대상으로 발전한 전시 선전과는 이념적 기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수행 주체와 대상, 전략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시 혹은 정치)선전, 홍보(PR: Public Relations)개념과 국제홍보(Public Diplomacy)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사실 국제홍보는 선전이나 홍보와 매우 유사하고 혼동되는 개념이다. 좀 더 세밀하게 국제홍보를 정의하자면 “외

⁹- USIA는 전시선전을 담당했던 OWI가 해체되면서 평시해외선전을 담당하기 위해 국무성 산하에 창설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 참조, Thomas C. Sorensen, *The Word War: The Story of American Propaganda* (Harper & Row Publishers, 1968).

¹⁰- Snyder, Alvin A., *Warriors of disinformation: American propaganda, Soviet lies, and the winning of the Cold War, an insider's account* (Arcade Publishing, 1995) 참조.

I
II
III
IV
V
VI

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시민사회를 겨냥한 상호관계와 소통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관점에 더해 다양한 사적인 의견과 관점을 포괄한다.”¹¹ 즉 국제홍보는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선전과 달리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보다 다양한 견해와 전달통로가 내포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RFA가 정부출연기관이지만 민간단체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목표와 효과의 시간적 차이이다. 국제홍보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PR)와 다른 점은 주체의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는 것 이외에 정책에 유리한 장기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다. 즉 단기적으로 불리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VOA는 흑백갈등이 첨예화될 당시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하였다. 또 전쟁 승리를 목적으로 발전된 심리전, 혹은 선전(Propaganda)과 다른 점은 신뢰성(credibility)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다. 선전은 “특정한 태도나 의견을 강화, 혹은 변화시키기 위한 설득과 공작”으로서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며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¹² 그러나 국제홍보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승부효과를 노리는 홍보전략이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국제홍보를 구성하는 이념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¹¹-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 107.

¹²- 선전의 효과를 정치현실에서 극대화시킨 나치정권의 괴벨스는 “선전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대중을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보다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전은 기만이나 왜곡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p. 7.

1. 이념

국제홍보의 이념적 기원은 냉전시기 미국의 반공캠페인 혹은 정치전(political warfare)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국제선전은 세계대전과 냉전시기 애국주의(patriotism)와 결합한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 사상을 핵심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헐리우드와 기업들은 국제홍보 방송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자본주의의 가치 수호에 나섰다.¹³ 한편 기업들의 이러한 애국적 국제홍보 후원과 자본주의의 가치 수호 전략은 1930년대 미국내 반기업 정서를 불식하고 1950년대 친기업적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개념적 차이에서 설명하였듯이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 국제홍보의 이념적 기반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혹은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 이념투쟁을 중심으로 반공캠페인 시기와는 다른 측면을 내포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제홍보는 대체로 반공산주의-전체주의 선전의 연장선 상에서 ‘미국의 핵심가치’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냉전시기와 그 이후 국제홍보의 최우선 목표로서 소위 ‘제 3의 물결’이라는 동구 민주화를 물밑에서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가치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화되고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종교적으로 무장된 소수의 테러집단, 전염병, 환경적 재앙,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국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나이는 이러한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기 위

¹³- Gerd Horten, *Radio goes to war: the cultural politics of propaganda during World War II*[electronic resour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s, 2002); Clayton R. Koppes, *Hollywood goes to war: how politics, profits, and propaganda shaped World War II movies* (Free Press, 1987) 참조.

하여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을 미국이 추구하는 연성파위의 중요한 가치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먼저 미국 민주주의 이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대단히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정치이념이다.¹⁵ 미국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정치이념은 대체로 자유주의-의회민주주의로 알려져 있다.¹⁶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가인 자카리아는 이에 민주주의와 입헌자유주의(Constitutional Liberalism)를 대비하면서 단순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권력을 결집하여 이를 민주적 독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 여기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의사결정권, 참여,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이념을 가리킨다. 의회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군부의 시민통제원칙,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사상을 구현하는 제도적 측면을 가리킨다.¹⁸ 미국은 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필리핀(1986), 세르비아(2000), 조지아(2003)의 민주화 운동을 연

¹⁴-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 16.

¹⁵-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과 정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Larry Diamond, *The Spirit of Democracy* (Times Book, 2008), pp. 17~20.

¹⁶- 이에 반해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선거제 권위주의(electoral authoritarianism), 사이비민주주의(pseudodemocracy) 등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항개념으로 제시된다. *Ibid.*, p. 23.

¹⁷-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W.W. Norton & Company, 2006), pp. 101~102. 자카리아는 미국이 민주주의 지원보다 후발개도국의 정치안정, 빈곤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¹⁸- Diamond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특성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Diamond, *The Spirit of Democracy*, p. 22.



구한 미국의 한 학자는 민주화 운동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¹⁹

- 첫째, 반전체주의적 정권에 대항하고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여 인기가 떨어진 정권에 대항하는 반체제 세력을 재규합하였다.
- 둘째, 불법 부정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잘 훈련된 시민 선거감시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 셋째, 선거부정을 폭로하고 대중적 저항을 유도하는 독립된 언론과 새롭게 형성된 학생운동 조직을 포함한 시민단체, NGO의 동원 능력이다.
- 넷째, 보안군 내부의 분열과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탄압 수단 포기 등이다.

미국의 주류 민주화 이론은 이처럼 민주화 운동을 추동하는 대중동원과 대중적 압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제한다. 시민사회의 주체들은 교회, 학생조직, 노조, 전문가 조직, 인권단체, 여성단체, 지하 혹은 합법적 언론, 지식인 그룹, 언론인, 상인과 농민 등이다.²⁰ 미국의 국제홍보는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 입각하여 난민사회(diaspora)와 대상국의 시민단체, 독립언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983년 설립된 미국 민주주의 재단(NED)은 국제 민주화 운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홍보의 제도적 실행체이다.²¹ NED는 미국 정당체제와 노조, 기업 및 NGO 등 미국 정치 참여 주체들의 다양한 관점을 대외적으로 투사하고 세계 각지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민주주의 지원예산은 1980

¹⁹- Michel McFaul, "Transitions from Postcommunism," *Journal of Democracy* 16 (July 2005), pp. 10~13.

²⁰- Diamond, *The Spirit of Democracy*, p. 53.

²¹- *Ibid.*, p. 121.

I
II
III
IV
V
VI

년대 말 1억불 수준에서 2000년대 7억불을 넘어서 부시대통령 두 번째 임기 중인 2006년 기준으로 15억불 수준에 이르고 있다.²²

해외 홍보방송도 이러한 미국의 민주주의 지원 이념과 원칙을 구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RFE 부국장을 지낸 바 있는 푸딩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우리들은 공산주의는 언젠가 쇠퇴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은 방송 청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념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소비에트블록을 넘어서 보다 풍요롭고 흥미있고 진실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미국과 동맹국들은 공산주의가 정통성이 없고 비도덕적인 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²³

초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RFE의 민주주의 이념은 주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점이 두어졌다. 즉 사회주의의 언론통제, 개인 사생활과 예술의 자유 침해 등 인권적 시안들이 다루어졌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사회정의를 실현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⁴ 다시 말하자면 미국 홍보방송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있는 그대로 찬양하고 확산하는 것보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비판정신, 정부의 폭정에 대항하는 자유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을 중심

²². 이 예산은 주로 USAID, NED, MEPI(중동파트너십이니셔티브) 및 국무성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예산이며 VOA, RFA 등 국제방송을 포함한 BBG예산이 제외되어 있다.

²³. Puddington, *Broadcasting Freedom: The Cold War Triumph of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xviii.

²⁴. RFE의 초기 보도지침 참조, *Ibid.*, p. 322.



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정향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가치와 연결되고 있다.

나. 인권

미국의 인권적 가치는 자유주의적 보편주의를 내재하고 있다. 인권 가치는 매우 애매하고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무엇이 인권보호에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인가? 그리고 왜 그러한 가치가 보호되어야 하는가? 특히 타국의 주권관할권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보편주의 인권 이론을 무기로 삼는다.

보편주의 인권이론은 유엔 헌장 전문 및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호원칙을 광의로 해석하여 국제적 인권보호원칙은 국가주권을 초월하는 개념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사회경제적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 혹은 절대적 권리항목이 존재하며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도덕적 책무라고 주장한다. 흔히 보편주의 인권이론은 사회적·경제적 혹은 문화적 인권보호 보다 정치적·시민적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혹은 서구적 가치를 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인권NGO들은 유엔헌장 제2조 7항의 ‘국내관할권’ 조항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으며 정치적·시민적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²⁵

인권문제는 기독교정신과 자유주의적 틀을 국가기본 이념으로 하는 미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이념적·실천적 요소를 구성해 왔다.²⁶ 인권 외교는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가치와 이념을 공식화

²⁵ 마이클 프리먼, 김철효 옮김,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2005), p. 55.

²⁶ Arthur Schlesinger, “Human Rights and the American Tradition,” *Foreign Affairs* 57 (1978), p. 505.

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을 구성한다.²⁷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냉전시
기 국가이익을 위해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독재국가들을 공식·비공식
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주의권 국가 및 이슬람권 국가에 대해서 인권적
인 편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인권외교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소위 B규약으로 알려진 정
치적·시민적 권리, 혹은 자유권적 기본권 보호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이념은 사유권을 포함한 자유
무역과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미국 외교의 도덕적 이념과 결부되면서
크게 보아 자유주의적 인권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빈센트 교수는
미국 인권정책의 3대 원칙을 첫째, 인간의 존엄성, 둘째, 기본적 필요의
충족, 셋째, 시민적·정치적 자유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적·경제적 권리
를 의미하는 두 번째 요소가 점차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⁸
잭 도넬리는 이러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인권관이 냉전시기 반공주의와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즉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는 자신들이 정의한 보다
좁은 인권개념의 틀로 비판하면서 자국내 홀리스 문제나 경찰의 가혹
행위, 인종차별문제 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보편적 인권문제
의 틀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인권관이 자유주의적
가치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일부 재산권만이 항상 미국적 인권개념의 중심이었다.’²⁹

²⁷- Robert Cullen, “Human Rights Quandary,” *Foreign Affairs* 71, No. 5
(winter 1992/3), pp. 79~80.

²⁸- R. J. 빈센트, “미국의 인권외교에 대한 유럽과 제 3세계의 대응,” 데이비드 D. 뉴섬
역음, 김계수 옮김, 『미국의 인권외교』, (서울: 탐구당, 1988), p. 55.

²⁹-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 101.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인권담당 책임자를 역임했던 해럴드 고 예일 대 교수는 미국예외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글에서 비록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인권적 잣대를 행사하여 국제적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오랜 전통과 분명한 법적 용어를 중시하는 미국적 예외주의가 보편적 국제인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³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자유주의 인권이념의 보편적 적용을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사회 주류세력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 가운데 정치범 수용소 문제, 공개처형 문제, 종교자유 문제, 정보 및 통신의 자유 문제 등이 1990년대 후반 이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편주의-자유주의 인권이론을 주창하는 미국의 입장은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 국제홍보의 이념적 정향성은 미국 인권운동의 배경으로부터 이해가 가능하다. 즉 미국내 인권운동이 주로 정치적·시민적 인권이념을 바탕으로 발전한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 인권이론은 자연권이론, 즉 천부인권론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인권사상이 이념적 근원을 구성하고 있다. 자유주의 인권이론은 철학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생명권과 재산권, 개인의 정체성 보호를 가장 중요한 인권가치로 규정한다. 여기서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주체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 권력남용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 인권이론은 미국독립운동과 건국이념으로 계승되면서 시장경제와 자유

³⁰- Harold Hongju Koh, "On American Exceptionalism," *Stanford Law Review* 55 (2003), pp. 1485~1487.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옹호하는 주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³¹ 이러한 이념을 내재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인권정향은 구체적인 실천목표나 전략선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정치범수용소 이슈는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인권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

미국의 인권이념이 이른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쟁거리이다. 여기서 인도적 개입은 종종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타국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인도적 개입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개념이다.³² 그러나 소말리아 사태, 유고내전, 코소보 사태,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르터스는 이를 ‘새로운 군사적 휴머니즘(new military humanism)’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부시행정부를 주도하는 신보수세력들은 군사적 수단을 전통적인 국가방위와 안보유지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의 세계전략적 역할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매르터스의 말을 빌자면 미국외교가 아직 인권이라는 가치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라면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 군대는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자

31. 미국의 대표적 인권학자인 도넬리교수는 궁극적으로 현대 인권이론은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제도적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ition (Westview Press, 1998), p. 155.

32.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는 다음 참조, Fernando R. Tesón, *Humanitarian Intervention: An Inquiry into Law and Morality*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97); 최근의 연구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Shashi Tharoor and Sam Daws, “Humanitarian Intervention: Getting Past the Reefs,” *World Policy Journal*, vol. XVIII, no.2 (Summer 2001).

신들의 행위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³³

그러나 과연 군사적 수단을 통한 인권가치 실현이 얼마나 실효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평화적 수단을 통한 인권실현이 과연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합치할 수 있는가 하는 도덕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³⁴ 미군 내에서도 평화유지라든가 인도적 개입에 군대가 동원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다. 미군의 인권실현을 위한 도구적 역할에 대한 평가도 아직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미군이 변화되는 국제안보 환경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인권가치를 자신들의 역할정체성으로 ‘내재화(institutionalize)’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⁵

다. 시장자본주의

세 번째로 시장과 자본주의 이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구사회주의 몰락과 민주화의 확산 과정에서 ‘문화의 충돌’이 예견되기도 하였지만, 시장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대부분 주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이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카리아는 이를 “20세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 보편적인 트렌드로서 자본주의의 보편화와 민주주의의 비보편화”로 표현하기도 한다.³⁶

33- Julie A. Mertus, *Bait and Switch: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Routledge, 2004), p. 92.

34- 대테러전을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의 기본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 정책이 인권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박수길·박기갑, “인권과 국제테러리즘,” 박수길 엮음, 『21세기 유엔과 한국: 새로운 도전과 과제』 (서울: 오름, 2002), p. 456.

35- Mertus, *Bait and Switch: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p. 128~129.

36-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p. 239.

시장과 무역은 전세계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명백하게 상호의존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이며 국제무역의 결재수단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제국이다.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무역과 자본주의 이념은 이론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업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경제적 자유주의로 표명된다. 미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이념이 자유를 상징한다면, 시장이념은 이른바 미국의 풍요를 상징한다. 즉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미국의 풍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풍요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연관지을 수 있다.

초기 RFE의 이념적 정향성을 드러내는 보도지침 제1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진행과정에서 전혀 부침이 없었으며 실질적 잠재적 생산성도 전례없는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인간이 창출한 그 어떤 경제체제도 미국경제와 같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융통성을 실현하고 성공을 보여준 사례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들의 선전은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홍보하여야 한다...국제사회 영역에서 우리는 세계평화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노력을 강조해야 한다.³⁷

이 지침은 이어서 미국이 유엔과 마샬플랜을 통해 막대한 경제지원을 행하고 있다는 관대함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다자무역제도의 확대를 통해 지구차원의 경제번영과 특히 저개발국가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³⁷- *Ibid.*, p. 320.

미국의 국제홍보는 이처럼 자본, 기술 및 노동의 자유로운 국제적 교환을 지지하는 자유무역의 이념을 지지하면서 자국의 번영과 경제적 풍요를 자본주의 제도의 실제적 결과로 홍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초기 국제홍보방송은 상대국의 농장생활, 생산활동 등 구체적인 경제생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경제제도의 무능력을 고발하고 보도통제가 된 사회의 ‘경제실적 부풀리기’를 폭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951년 RFE 보도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의 도덕적 정신적 허구성과 노동계층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제제도로서의 무능력을 고발한다.³⁸

이러한 지침과 더불어 RFE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집단농장화로 가장 큰 물질적 손실을 보고 있던 동유럽의 농민계층이었다. 헝가리방송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농민 발린트’와 ‘농민프로그램’이라는 두 개의 농업관련 프로그램이었는데 농민출신 난민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논조로 헝가리 집단농장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2. 전략

미국의 전시선전 연구의 효시로 불리우는 해롤드 라스웰은 선전의 전략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한 바 있다.³⁹

³⁸-Puddington, *Broadcasting Freedom: The Cold War Triumph of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p. 44.

³⁹-Harold Dwight Lasswell, *Propaganda Technique in the World War* (New

- 1) 적국에 대한 적개심 동원
- 2) 동맹국의 우호 유지
- 3) 중립국의 우호유지 혹은 가능하다면 협조 창출
- 4) 적국을 비도덕화 시키기

라스웰은 적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직접선전뿐만 아니라 적국을 고립시키고 우호 국가를 확산시키기 위한 동맹국과 중립국에 대한 선무 및 선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의 이중적 목적을 위해 라스웰은 선전의 심리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문명, 국제법 혹은 자유 등의 가치(cause)가 대중의 희생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홍보 전략은 이러한 라스웰의 고전적인 선전의 원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나치즘 같은 이념적 대항세력이 사라진 현재 미국의 방송홍보 전략은 이념대결보다 세련되고 장기적인 심리적 지지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조지프 나이는 연성파워(soft power)란 상대측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며 가치와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⁰ 특히 연성파워의 세 가지 자원으로써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정책을 꼽고 있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문화와 정치적 가치가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문화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구별되는데 양자 모두가 상대의 관심과 매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화, 보편화는 미국의 연성파워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 국제홍보방송의 연성파워 전략은 상대국, 혹은 청취층

York: Knopf, 1927),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pp. 26~27에서 재인용.

⁴⁰-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p. 10~12.



이 거부감 없이 사실보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영향력을 핵심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왜곡이나 과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보도 사실주의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점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VOA 현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국제홍보는 추상적인 레벨에서 시장경제와 열린 사회(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하지만 구체적인 단계에서 단일한 이념적 지향보다는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즉 참여한 사회적 주제나 정책과 관련한 현재 진행형 토론을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보도사실주의 원칙이다.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은 라디오를 통한 제 국민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VOA는 청취자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VOA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 1) VOA는 신뢰성과 권위있는 뉴스보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VOA 뉴스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총괄적이어야 한다.
- 2) VOA는 미국의 부분이 아니라 미국 자체를 대변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미국인들의 사고와 제도들의 균형잡히고 총괄적인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3) VOA는 미국의 정책을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책임있는 토론과 의견을 전해야 한다. (Public Law 94-350)

즉 VOA현장은 장기적인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청취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은 전통적인 심리전 혹은 선전이론이 적국을 비도덕화, 악인화하기 위해 언론조작(media manipulation), 기만(camouflage) 등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웰치가 지적하는 정보와 선전의 차이점은 이 부분

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냉전시기 선전은 “대상 혹은 대중을 설득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것, 즉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 걸게 만드는 것인 반면, 정보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교육을 통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것이다.”⁴¹

RFE의 경우 VOA와 달리 자체적인 분석능력과 현지 난민들을 직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통제가 심한 국가가 보도하지 못하는 ‘진실’들을 보도함으로써 현지 청취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RFE는 유럽 주요도시에 난민네트워크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사실적인 보도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5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RFE 산하 자유헝가리 방송은 자유세계 소식보도에 있어서 현지언론보다 평균 44시간, 공산국가내부 소식 보도에 있어서 평균 13시간 정도 신속하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956년 Imre Nagy 헝가리 총리선임 보도에 있어서 당 공식 보도기관보다 빨랐다.⁴² 구체적인 농장생활 등 주민들의 삶의 현실에 관한 RFE의 방대한 자료들은 동유럽 국가들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도 원칙도 철저히 전략적 선택을 통해 실행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1979년 교황의 폴란드 방문보도에 있어서 폴란드 국영 TV가 2분을 할당하면서 종교자유에 대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

⁴¹-David Welch, “Power of Persuasion,” *History Today* 49 (Aug. 1999), pp. 24~26,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p. 8에서 재인용.

⁴²-Puddington, *Broadcasting Freedom: The Cold War Triumph of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p. 47.

⁴³-*Ibid.*, p. 40.



의 언급을 삭제한 대신, RFE 폴란드어 방송은 전체 19시간 방송시간 가운데 13시간을 생중계로 할당하였다. USIA의 부국장을 역임한 소렌슨은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선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효율적인 미국정부의 국제선전은 다른 국민들이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이념과 정보를 잘 선택하여 믿을 수 있게 확산시키는 것이다.⁴⁴

철저한 보도 사실주의로 진실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전략과 더불어 미국의 방송홍보는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파고드는 음악, 패션, 영화, 스포츠 등의 대중적 자원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RFE도 이러한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영국의 팝스타 탐 존스, 여배우 줄리엣 그레코는 물론 러시아 정교회 주교 등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방송한 바 있다. 자유형가리방송의 경우 본국에서 방송이 금지된 저명한 작곡가 Bera Bartók의 음악이 방송을 탔고 폴란드의 경우 19세기 러시아의 학정을 고발하는 폴란드 애국시인의 시가 폴란드인의 심금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문화자원 전략은 민간영역 활용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처음부터 RFE는 미국 정부와 CIA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민간 단체의 외양을 표방하였다.⁴⁵ 초기 RFE에 대한 재정지원은 ‘자유십자

⁴⁴ Thomas C. Sorensen, *The Word War: The Story of American Propaganda* (Harper & Row Publishers, 1968), p. 5.

⁴⁵ RFE는 1972년 공개적인 의회예산 지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CIA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CIA의 간섭이 배제되고 예산이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RFE는 시시콜콜한 국내 정치의 간섭과 여론의 비난에 휩싸이게 되었다. Puddington, *Broadcasting Freedom: The Cold War Triumph of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pp. 23~32.



군(Crusade for Freedom)’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모금을 통한 것으로 위장되었다.⁴⁶ 그러나 CIA는 해외홍보방송을 역정보 등 공작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유보하였다. 전체적으로 냉전시기 RFE와 CIA의 목적과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것은 RFA도 마찬가지이다. RFE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보다 상세히 다루어지겠지만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적 배경, 시민사회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국제홍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이민자-난민사회 등 가용한 민간자원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⁴⁷ RFE의 경우 처음부터 난민그룹을 이용한다는 전략이 세워졌다. RFE의 전략을 총괄하면서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사실상 지원했던 FEC(Free Europe Council)는 난민관계, 라디오, 미국사회접촉 등 세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구소련에서 유대인 지식인들이 대거 추방되면서 이들은 미국의 국제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RFA의 전략은 대체로 사회주의 붕괴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RFE의 전략을 수용하고 있다. 상대국 대중을 향한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RFE의 공격적 전략은 동유럽 국가들과 전통적인 외교수단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꾀하려는 국무성 측 외교관들과 늘 정책적 긴장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956년 헝가리 사태가 소련의 개입으로 무차별적인 탄압에 의해서 실

⁴⁶ 실질적으로 자유십자군 캠페인을 통해 지원된 금액의 비중은 1950년대 냉전시기 RFE 소요예산의 19%정도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CIA의 비공개적인 공작자금으로 충당되었다. RL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CIA 지원에 의존하였다. *Ibid.*, p. 24.

⁴⁷ 연성파위에서 NGO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p. 90~98.



패로 끝나고 난 직후 체코와 폴란드 외교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당시 외교관들은 온건한 사회주의 정부와 외교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소련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RFE는 강경한 난민집단을 내세워서 상대국을 자극하고 오히려 반미정책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RFE의 내부개혁과 이중정책이라는 이론적 지지를 통해 해결되어 나갔다.⁴⁸ 이러한 지지의 배경은 미국 국내의 이러 저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에서 RFE의 청취율이 BBC와 VOA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56년 헝가리 민주화운동 당시 청취율은 무려 50%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히 구소련을 겨냥한 RL은 인권문제 보도에 집중하였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면서 소련내부의 지하신문(samizdat)을 보도원으로 하여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문제 등을 보도하였다. 또한 RL은 197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소련의 예술인, 작가 등 지식인 그룹들을 충원하여 러시아 문화, 예술 등에 관한 보도에 집중하였다. 소련 공산주의가 러시아민족전통과 상치되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인권과 전통문화, 혹은 민족정서에 대한 호소력있는 보도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보이콧운동에서 큰 힘을 발휘하였다.⁴⁹

⁴⁸- 1961년 Zbigniew Brzezinski에 의해서 구체화된 이중전략 이론이란 동구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접촉과 정치방송은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교관계 복구가 공산주의 및 소련이 지배를 용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Zbigniew Brzezinski & William E. Griffith, "Peaceful engagement in Eastern Europe," *Foreign Affairs* (July 1961), pp. 642~654.

⁴⁹- 한편 RL이 지나치게 러시아 민족정서를 자극하여 폴란드민족 무시, 러시아정교회를 제외한 카톨릭 무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파하였다는 내부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Puddington, *Broadcasting Freedom: The Cold War*

3. 조직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국제홍보 및 국제방송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합, 개편하였다. 국제방송법을 통해 모든 해외 방송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국제방송부(IBB: International Broadcasting Bureau)가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 정보처(USIA) 산하에 연방국제방송위원회(BBG: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를 설립하여 해외 방송에 대한 예산지원, 서비스 감독을 실시하였다. 1998년 BBG는 독립된 연방기구로 재편되며 정보처가 폐지되고 국무부가 감독권을 가지게 된다.

BBG는 미국의 소리(VOA), 유럽자유방송/자유라디오(RFE/RL), 자유아시아방송(RFA), 쿠바를 겨냥한 라디오와 TV 말티(Martí), 라디오 사와 및 알홀라 TV를 포함한 중동방송네트워크(MBN) 등 미국의 대외 홍보방송망을 총괄적으로 지배하고 감독한다(<그림 II-1> 참조). 미국의 대외 홍보방송망은 매주 1억 7천 5백명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60개 이상의 언어로 전파가 송출되고 있다. BBG 산하에는 VOA와 말티방송의 운영과 송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방송부(IBB)가 있다. BBG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8명의 독립적인 민간 위원과 당연직으로 현직 국무장관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BBG는 그 운영목적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미국과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정확한 정보와 뉴스를 전세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⁰

Triumph of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pp. 275~276.

⁵⁰- <<http://www.bbg.gov/about/documents/BBGFactSheet2-09.pdf>> (검색일: 2009. 8. 8).



9.11 이후 BBG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점사업을 천명하고 나섰다.

- 1)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 전달
- 2) 정보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민주주의가 취약한 지역에 뉴스 전달
- 3) 내전, 전염병, 문맹으로 고통 받는 국가들을 지원

BBG는 장기적 비전 성공을 위해서 시장변화와 내부적 변화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상정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뉴미디어 사용 및 끊임없는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내부적 변화를 위해서는 자원의 통합 및 합리화, 각 매체의 조화와 협력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 연구 사업 및 언론인 지원, BBG 저널리즘의 독립성 유지 및 정부 대외정책 공동체 내에서의 긍정적 관계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BG는 자체적인 과업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있다. 업무수행 평가 지표에는 주간 청취율, 프로그램 질, 신호강도, 위성 네트워크 수행지수, 협력관계, 인지도 등 여러 가지 인덱스를 사용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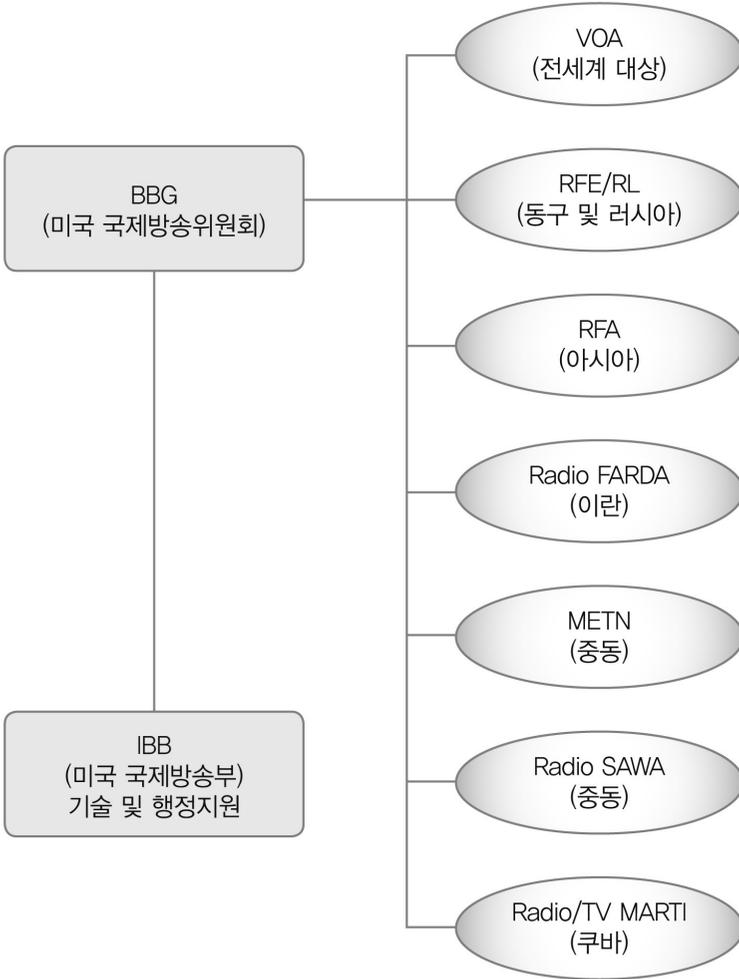
III

IV

V

VI

<그림 II-1> 미국 국제홍보방송 조직구조



<표 II-1> BBG 2008 회계연도 예산⁵¹

산하 언론기관	예산	할당 비중
IBB (BBG 행정예산포함)	\$251.3 million	37%
Middle East Broadcasting Networks	\$91.7 million	13%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83.2 million	12%
Radio Free Asia	\$34.4 million	5%
Office of Cuba Broadcasting	\$33.4 million	4%
Voice of America	\$188.4 million	28%
전체	\$682.2 million	100%

BBG 전체 예산에서 RFA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II-1>에 나타나듯이 5%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쿠바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방송보다 약 1% 포인트 많은 수치로 9개 언어권, 특히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적 광역성으로 볼 때 생각보다 적은 비중이다.

한편 BBG예산과 별도로 미국 상원 세출위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예산에서 2010 회계연도에 특별히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 활동을 위해 3백만 달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VOA방송과 RFA를 통한 대북 방송에 8백만 달러 예산을 책정하였다.⁵²

VOA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선전을 담당하는 해외정보처(FIS; Foreign Information Service) 산하에 설치 운영되었으며⁵³ 1942년 아시아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 및 서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단파, AM, FM, 위성방송,

⁵¹- BBG, *BBG Annual Report* 2008.

⁵²- RFA, 2009년 7월 10일. 앞서 하원 세출위원회는 2009년 6월 23일 국무·대외사업 예산을 처리하면서 북한 관련 예산 9천8백만 달러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하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북 특사가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⁵³- 동 조직은 1942년 전시정보국(OWI)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터넷 등을 송출하고 있는데 전체 방송시간은 주당 약 1천 시간을 상회하고 있다. 뉴스와 논평, 음악, 문화 프로그램이 중심이며 대부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만 자회사를 통해 아웃소싱 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VOA는 여러 차례 조직과 예산 감축 등 국내적 위기와 비판에 직면하지만 냉전시기 소련의 국제홍보방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국제홍보 방송 재정비 계획에 따라 VOA는 BBG 산하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제홍보방송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VOA는 1,200명이 넘는 상근직원이 미국과 해외에 근무하고 있다. VOA 워싱턴 본부에는 55개가 넘는 라디오 스튜디오와 5개의 TV 스튜디오 등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개인 PC에서 직접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첨단 달렛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994년 미국 국제홍보 방송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각종 영상 자료와 오디오,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사이버 공간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 스트리밍 서비스와 주단위 프로그램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 요구 형식으로 프로그램 스크립트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저널형식의 정보를 송출하고 있다.

RFA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어민을 위한 현지어로 방송되는 미국의 대외 홍보방송이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홍콩, 타이페이, 방콕, 프놈펜, 서울 등지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다람살라와 터키 앙카라 등지에 현지 통신원 사무실을 두고 있다. 2007년 현재 270명의 직원과 약 200명의 현지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 본부에는 11개의 제작 스튜디오와 18개의 미니 스튜디오 및 6개의 디지털 스테이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수장은 Libbi Liu로 2005년 이후 창립자인 Richard Richter 후임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펜실베니아대학 법대를 수료한 법조인으로 다양한 민간기업 및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1996년 이래 베테랑 기자 출신인 Dan Southerland가 부회장겸 수석에디터로 재임하고 있으며 각 언어권별로 1명의 담당 국장이 활동하고 있다. Southerland 수석 에디터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다양한 취재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체류 경험이 있는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한국어 담당 전 국장인 안재훈씨는 미국북한인권위원회 이사직을 수임하고 있다. 2007년 서울지국을 개설하고 2008년 8월 현재 38명의 스태프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부국장 및 신규직원을 충원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돌연 신임 국장이 해임되고 후임 국장도 VOA 임원출신인 한인섭씨가 대리하고 있다.

RFA의 방송지역과 방송시간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RFA 방송지역 언어 및 방송시간

언어	방송개시 일시	일일방송시간
중국어	1996. 9	12시간/일
티벳어	1996. 12	8시간/일
버마어	1997. 2	2시간/일
베트남어	1997. 2	2시간/일
한국어	1997. 3	4시간/일
라오스어	1997. 8	2시간/일
크메르어	1997. 9	2시간/일
광둥어	1998. 5	2시간/일
위구르어	1998. 12	2시간/일

출처: <www.rfa.org>.

I
II
III
IV
V
VI

Ⅲ. 대북방송망의 운용실태: VOA와 RFA



VOA는 1942년 나치치하의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북한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심리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들이다. 이 두 언론기관은 미국연방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의 지원과 통제를 받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BBG 산하 국제방송국(International Broadcasting Bureau) 예하의 미연방정부기구이며 자유아시아방송은 비영리민간기구로 법적 신분상 차이가 있다.

VOA의 한 기자는 필자에게 “VOA의 사명은 주로 해외 정보를 북한에 전파하는 데 있는 반면 RFA는 (북한내부 소식을 전파하여) 궁극적으로 평양방송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VOA 한국어 방송은 최근 증파로 송출되는 방송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5시간으로 강화하였으며 한국어 방송의 스태프를 30명으로 늘렸다. 또 한국지부(6명)를 강화하였다.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해외뉴스보도 뿐만 아니라 팝음악, 재즈음악 소개 등을 통해 미국 문화, 가치유입을 모색하고 있다.⁵⁴

RFA가 첫 전파를 쏘아 올린 것은 1996년 9월 29일. 시작은 중국어 방송이었다. 단 30분의 방송이었지만 중국정부는 격렬히 반발했다. ‘중국에 언론의 자유가 없으니 그 공백을 우리가 메우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창피주기’인 데다 방송의 주요 제작진이 중국에서 반체제운동을

54- 2008년 5월 VOA는 북한인권주간 행사 참여 탈북자 일행 전부를 초대하여 방송국을 안내하고 4명의 참여자와 함께 좌담프로그램을 녹화 방송하였으며 탈북자들과 스태프 전원미팅을 개최하여 북한 내 방송 청취계층 및 청취 시간대,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관심사, 방송내용 편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탈북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하다 미국으로 망명한 인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즉각 “미 중앙정보국이 만든 냉전시대의 잡음”이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고 이듬해부터는 방해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RFA 방송내용은 오전과 오후가 다르며 오후는 1시간 방송내용을 3회 반복하고 있다. 송신소의 위치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몽골, 러시아, 필리핀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시간도 늘어나서 현재 매일 4시간을 커버하고 있다. RF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 7시~8시, 밤 11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 단파로 송출되고 있다. 단파방송은 전파간섭과 전리층의 영향으로 주파수를 자주 변경해야 한다. RFA 역시 연 1회 정도 주파수를 변경하고 있다. 현재 648, 7210, 7380, 15625, 11790, 13625KHz 등의 주파수대를 갖고 있지만 이보다는 라디오 채널 스위치를 돌리면서 한국말 방송이 나오는 위치에서 멈춰 방송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전체 비중으로 볼 때 티벳(7시간)을 포함한 대중국 방송(9시간)을 제외하고 대버마 방송(4시간)과 함께 두 번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RFA의 특징은 정치적인 방송이면서 철저하게 노동자, 농민 등 일반인을 주요 타겟 청취층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현지 지식인이나 당권력 지도부보다 민중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전략부에서 지적하였듯이 시민사회를 통한 접근, 민주주의 이념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RFA의 접근방법은 신중하고 점진주의적인 것이다. 과거 RFE가 헝가리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에 치중한 나머지 서구의 개입을 오산한 시민층의 참여를 확대시켜 피해를 가중시킨 사례는 RFA의 보도 사실주의 원칙과 더불어 신중한 접근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
II
III
IV
V
VI

구체적인 보도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뉴스에디터의 자율성이다. RFA는 RFE의 전통에 따라 중앙에서 직접 지시하는 뉴스보도의 원본이 없다. 매일 오전 브리핑회의에서 당일 기사거리들이 결정되고 취재 나간 기자들이 써오는 기사들은 뉴스에디터의 손을 거쳐 수정보도 된다. 다른 나라의 해외 홍보방송의 경우 미리 중앙에서 결정된 뉴스 원본이 제공되고 이것을 각국어로 번역하여 송출하는 제도가 일반적이다.⁵⁵ 구체적으로 RFA의 기사 편성에 대해서 BBG에서 보도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RFA 기사를 지낸 P씨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RFA 모국장의 경우 직접 기자들에게 기사 지침을 지시하고 심지어 기사내용까지 본인이 직접 간섭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사람들의 의중을 잘못 읽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국장은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RFA는 진실보도가 사명이다. 북한에 관한 소식을 물어오면 된다. 오히려 그 때문에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간 적도 많고 검증되지 않은 보도들이 나가고 있다. VOA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소스가 없는 것은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고 에디터가 내용을 꼼꼼히 검증하고 있어 오보의 확률이 그만큼 적고 진실보도의 사명에 더욱 철저한 편이다..RFA의 문제점은 뉴스에디터의 역량이다. 별로 전문성이 없고 기사의 사실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다. 기자들도 그냥 지면을 채우기 위해 이것 저것 북한관련 소식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온다.⁵⁶

다음 인용문은 RFA 서울사무소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는 이수경씨가 신동아 취재에 응해 자신의 하루 일과를 소개한 글이다. 역시 RFA의

⁵⁵-Puddington, *Broadcasting Freedom: The Cold War Triumph of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p. 41.

⁵⁶- 필자와의 인터뷰내용, 2009년 8월 8일.



편성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⁵⁷

아침에 출근해 이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문 읽기. 북한 관련 뉴스는 빠뜨리지 않고 보고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모두 체크한다. 그 중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뉴스를 선정하고 그날의 취재대상을 정한다. 그 내용을 워싱턴 본사에 있는 한국말 방송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내용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후 취재현장에 뛰어든다. 대본을 작성하고 목소리를 녹음하여 이를 본사에 보내는 일까지 모두 기자의 몫이다. 지금껏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받거나 방송에서 제외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가 신경을 쓰는 대상은 북한 주민이지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아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요즘 북중 국경지대에 탈북자 단속이 완화되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RFA의 보도를 믿고 이동했던 탈북자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 바로 이런 걸 걱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여긴다.”

I

II

III

IV

V

VI

57. 손광주, “미국의 라디오 전쟁사령부 RFA정체: 효과만점 대북 압박카드 김정일 몰락 노린다,” 『신동아』 46권 10호 (2003년 10월호).

IV. 대북방송 구성 분석



대북방송은 수신자의 태도에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과정이다. 따라서 대북방송의 뉴스 콘텐츠와 논평들은 선택과 강조, 배제 과정을 통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방송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것은 일반적으로 뉴스 프레임이라고 정의된다. 즉 뉴스 프레임이란 ‘인지, 해석, 제시의 지속적인 패턴이며 상징의 조작자가 언어적·영상적 담론을 일상적으로 조직하는 선택, 강조, 배제의 패턴이다.’⁵⁸ 뉴스 프레임을 통해 메시지 전달자는 인식된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진단하며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선택한 뉴스들이 소통체계 내에서 보다 현저한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산출한다.⁵⁹

프레임 분석은 내용에 따른 분석과 형식에 따른 분석으로 대별될 수 있다. 형식에 따른 분석은 뉴스의 내용과 관계없이 뉴스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틀이고 내용에 따른 분석이란 뉴스의 전달내용에 중점을 두는 분석방법이다. 전자는 ‘주제중심적’, ‘사건중심적’, ‘주제와 사건중심적’ 분석틀로 세분될 수 있으며 후자의 분석틀로는 ‘갈등프레임’, ‘흥미프레임’, ‘경제프레임’, ‘도덕성프레임’, ‘책임프레임’ 등이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⁶⁰

이러한 프레임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미국 대북방송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⁵⁸- T. Gitlin,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p. 6.

⁵⁹- R. Entman, "Framing: Toward a Clarification of Fractures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1993), pp. 51~58.

⁶⁰- H.A. Sementko & P. M. Valkenburg,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2000), pp. 93~109.



1. VOA

전반적으로 VOA의 프레임은 균형있는 보도와 북한에 대한 사실보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VOA는 탈북자 인권문제 등 북한의 태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레임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7월 VOA는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내용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중국 국경도시 현지 리포트를 통해 실시한 바 있다. 이 방송내용은 탈북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성노예로 팔려가는 현실 등 탈북자 인권문제를 사실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VOA 한국어방송 보도프레임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 이슈로 구분되어 있다.

- ① 한반도 정치뉴스 ② 국제뉴스(정치 외교관계 중심)
- ③ 전쟁 테러 ④ 재해 재난
- ⑤ 경제 ⑥ 환경

이러한 보도프레임과 별도로 세부 주제별로 인권, 스포츠, 문화, 생활 뉴스, 연예가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RFA 보도 프레임이 정치 중심적인 데 비해서 VOA 프레임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뉴스의 보도대상이 전세계적 이슈와 지역에 걸쳐 있어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세계 뉴스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내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보도 이외에 현안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논평을 보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집을 기획하여 내보내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특집 기획보도는 러시아의 한인교포, 즉 까레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3부작이

I
II
III
IV
V
VI

방송된 바 있다.⁶¹ VOA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⁶²

▣ Editorial

정부의 정책과 미국인들의 사고 및 제도 등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회, 일요일에는 6회 방송된다.

▣ Interview

그날의 뉴스 중 주요화제와 관련된 정부관리, 전문가, 일반인 등을 초청하여 VOA 저널리스트가 대담을 진행한다.

▣ News

미국 및 전세계 당일 주요 뉴스를 방송한다. 매일 15회 방송된다.

▣ Sports

VOA 스포츠 담당 기자들이 전세계 스포츠 최신 뉴스들을 보도한다. 또한 운동이나 경기와 관련된 짧은 특집 프로그램도 방송한다. 매일 10회 방송된다.

▣ Border Crossings

VOA의 월드 와이드 국제 음악 쇼 프로그램

▣ Close to Business

그날의 최신 비즈니스 관련 뉴스와 속보

⁶¹- <<http://www.voanews.com/korean/categories.cfm>> (검색일: 2009. 8. 29).

⁶²- 이은미, 『해외방송 발전전략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2004), pp. 51 ~ 52.



▣ Business Report

최신 비즈니스 및 경제 관련 동향을 알아보고 경제관련 속보를 제공한다.

▣ Dateline

그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주요 이슈에 대한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

▣ Expanded Reports

매주 평일 그날의 뉴스 및 사진 중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 보도를 제공한다.

▣ Focus

논평자가 그날의 뉴스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화제들 중 복잡한 이슈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논평 제공

▣ Opinion Roundup

미국 및 전세계 미디어 의견 및 전문가 논의 그리고 VOA 청취자 편지 등을 소개한다.

▣ Talk to America

라디오와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동시에 방송되는 국제적인 초청 대담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의 미국 정책결정권자 및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취자도 함께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된다. 청취자는 전화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World Business

국제 비즈니스 뉴스 제공

I

II

III

IV

V

VI

2. RFA

전영선은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과 RFA 대북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세 개의 방송 콘텐츠를 비교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남북관계에서 국제관계에 걸쳐 6가지 프레임 인덱스를 비교하였다.⁶³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치군사관련 프레임에서 RFA 대북방송의 ‘갈등’ 프레임은 전체 관련 방송콘텐츠의 50%로 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44.4%), 자유북한방송(18.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역시 ‘대북압박’ 프레임에 있어서도 전체 관련 방송콘텐츠의 25%로 다른 두 개 대북방송(0%)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프레임은 국제관계 보도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대북압박’ 프레임에 있어서 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은 42.9%인 반면, RFA 대북방송은 50%를 할당하고 있고 ‘갈등’ 프레임에 있어서도 RFA 대북방송은 29.1%(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 0%)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은 대북지원 관련 프레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주로 인도적 사업으로 인식되는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대한 보도에서 RFA 대북방송은 ‘지원사업이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 프레임이 22.2%로 다른 두 개의 대북방송(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 0%, 자유북한방송 12.5%) 보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내부 소식 보도 프레임에 있어서 RFA 대북방송은 북한정치와

⁶³ 전영선, 『대북방송 보도에 관한 연구: KBS사회교육방송과 RFA, FNK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디지털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사회의 ‘불안’ 프레임이 전체 북한내부 소식 보도의 82.3%를 차지하고 있어 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33.4%) 보다 월등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북한내부 보도 프레임에 있어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은 전체 보도의 100%를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탈북자/북한인권 관련 프레임에 대한 세 방송 프레임 평가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탈북자/북한인권 관련 프레임⁶⁴

	사회교육방송	RFA 대북방송	자유북한방송
인도적 대응	2(66.6)	17(54.9)	2(20.0)
국제법 위반	0	5(16.1)	1(10.0)
인권개선시위	0	1(3.2)	4(40.0)
인권유린	1(33.3)	1(3.2)	1(10.0)
탈북자 생활전반	0	5(16.1)	1(10.0)
탈북방지노력	0	2(6.5)	1(10.0)
합계	3(100.0)	31(100.0)	10(100.0)

<표 IV-1>에서 나타나듯이 RFA 대북방송은 탈북자 및 북한인권 보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비판적인 보도 프레임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도적 대응 프레임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RFA 대북방송이 남북 군사문제나 북핵문제에 있어서 ‘해결전망’과 ‘대북압박’ 프레임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는 전영선의 ANOVA분석 결과도 RFA 대북방송이 비교적 보도 형평성과 객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⁶⁵

⁶⁴- 위의 글, p. 89.

⁶⁵- 위의 글, p. 94.



<표 IV-2> 와 <표 IV-3>, <표 IV-4>는 RFA 2007년 7월 일일방송 편성표이다. 일일편성은 뉴스보도, 논평, 탈북자 스토리와 탈북자들의 직업 안내, 문화코너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논평진을 살펴보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명호씨, 송영대씨 등 보수성향의 논객들이 기명평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영환, 김태산씨 등 탈북자 출신 지식인들이 순서를 바꾸어 가며 북한소식에 대한 논평, 자신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북한현실 등을 비교적 쉬운 논조로 방송하고 있다.⁶⁶

일일편성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7월 23일 21분, 7월 24일 26분 30초, 7월 25~26일 26분 30초 등 뉴스보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이산가족 소식과 탈북자 스토리 등 인권문제가 뒤를 잇고 있는 점이다. 즉 7월 25일 이산가족 이야기가 15분 46초, 7월 26일과 7월 28일 인권이야기 10분 28초 등이다.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편성은 인터뷰, 초대석 등인데 주로 북한인권운동가, 탈북자, 북한문제 전문가 등이 초청되고 있다.

<표 IV-5>는 특히 RFA의 보도 순서에서 차지하는 주제별 비중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뉴스 보도에서 보도순위는 일반적으로 주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RFA는 탈북자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보도 순위로 나타난다. 탈북자 문제에 뒤이어 북핵문제가 두 번째 보도순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북지원 문제가 13% 정도 비중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RFA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RFA는 과거 RFE의 전통을 이어받아 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체방송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

⁶⁶- <www.rfa.org> 참조.

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미관계의 가장 우선적인 현안인 북한핵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RFA의 역할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표 IV-2> RFA 자유아시아방송 편성표-1

#	7월 23일(월)	분:초	7월 24일(화)	분:초
1	opening	1:00	opening	01:00
2	News Report	21:00	News Report	26:30
3	intro	00:15	News Update	01:00
4	Column by Moon Myong-Ho	05:36	closing	00:30
5	intro	00:15	Billboard/intro	00:40
6	Korea/Asia News	10:27	Seoul Plaza	05:01
7	News Update	01:00	intro	00:15
8	closing	00:30	American Pacific Dialogue	07:06
9	Billboard/intro	01:20	intro	00:15
10	Seoul Plaza	06:16	Current Affairs	07:26
11	intro	00:15	Loan Words	02:40
12	True Color of the Kim Dynasty	05:03	intro	00:15
13	intro	00:15	Book Reading	02:22
14	Book Reading	02:26	News Update	02:50
15	News Update	02:12	inter-bridge	02:00
16	inter-bridge	02:00		

I
II
III
IV
V
VI

<표 IV-3> RFA 자유아시아방송 편성표-2

#	7월 25일(수)	분:초	7월 26일 (목)	분:초
1	opening	01:00	opening	01:00
2	News Report	26:30	News Report	26:30
3	News Update	01:00	News Update	01:00
4	closing	00:30	closing	00:30
5	Billboard/intro	00:40	Billboard/intro	00:40
6	RFA Invitation	09:56	Seoul Plaza	06:23
7	intro	00:15	intro	00:15
8	Stories of Separated Families	15:46	Tales of Human Rights	10:28
9	intro	00:15	intro	00:15
10	News Update	01:08	Kim Jin Hee's Health Corner	01:28
11	inter-bridge	02:00	intro	00:15
12			Andrei Lankov Corner	03:58
13			intro	00:15
14			Book Reading	02:30
15			News Update	01:23
16			inter-bridge	02:00

<표 IV-4> RFA 자유아시아방송 편성표-3

#	7월 27일 (금)	분:초	7월 28일(토)	분:초	7월 29일(일)	분:초
1	opening	01:00	opening	01:00	opening	01:00
2	News Report	26:30	News Report	07:00	News Report	09:00
3	News Update	01:00	Billboard/intro	01:02	Billboard/intro	01:00
4	closing	00:30	Seoul Plaza	05:01	Seoul Plaza	05:10
5	Billboard/intro	00:40	intro	00:18	intro	00:20
6	Seoul Plaza	05:10	RFA Invitation	09:56	Column by Cheon Seong-Hun	04:37
7	intro	00:15	intro	00:14	intro	00:20
8	Weekly Press Review	06:02	True Color of The Kim Dynasty	05:02	Special Interview	29:22
9	intro	00:15	intro	00:58	intro	00:20
10	The World News	05:14	Tales of Human Rights	10:30	Promo	01:00
11	Filler program	01:09	intro	00:13	Lee Aeran's Seoul Words, Pyong Yang Words	03:56
12	intro	00:15	Defector's Nest	07:07	closing	01:55
13	Job in South Korea	05:15	intro	00:10		
14	intro	00:15	Greg's Radio Essay	07:59		
15	Book Reading	02:40	closing	01:30		
16	intro	00:15				
17	News Update	00:35				
18	inter-bridge	02:00				

I
II
III
IV
V
VI

<표 IV-5>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순서에 따른 기사소재
(건수, %)

보도순서 기사소재	1	2	3	4	5	6	7	8
남북 정치군사	1 (3.3)	1 (3.3)	0	6 (20.8)	5 (17.3)	3 (11.5)	4 (25.0)	0
남북경제	0	0	0	3 (10.4)	1 (3.4)	2 (7.7)	1 (6.3)	1 (50.0)
남북 사회문화	0	0	1 (3.3)	1 (3.4)	0	1 (3.8)	0	0
북핵	5 (16.7)	7 (23.3)	10 (33.3)	6 (20.8)	10 (34.7)	6 (23.2)	7 (43.6)	0
탈북자	9 (30.1)	8 (26.7)	6 (20.1)	1 (3.4)	1 (3.4)	0	0	0
북한인권	2 (6.7)	2 (6.7)	0	0	0	1 (3.8)	1 (6.3)	0
대북지원	4 (13.3)	4 (13.3)	5 (16.7)	5 (17.2)	2 (6.9)	5 (19.3)	2 (12.5)	0
북한군사	2 (6.7)	2 (6.7)	1 (3.3)	1 (3.4)	1 (3.4)	0	0	0
북한소식	4 (13.3)	1 (3.3)	2 (6.7)	2 (6.9)	2 (6.9)	4 (15.4)	1 (6.3)	1 (50.0)
미국소식	0	0	0	1 (3.4)	2 (6.9)	0	0	0
한미관계	1 (3.3)	2 (6.7)	0	0	2 (6.9)	0	0	0
북미관계	1 (3.3)	2 (6.7)	1 (3.3)	2 (6.9)	0	0	0	0
북중관계	0	0	0	0	1 (3.4)	0	0	0
북일관계	0	1 (3.3)	2 (6.7)	1 (3.4)	1 (3.4)	2 (7.7)	0	0
북러관계	0	0	1 (3.3)	0	1 (3.4)	1 (3.8)	0	0
국제사회의 시각	1 (3.3)	0	1 (3.3)	0	0	0	0	0
합계	30 (100)	30 (100)	30 (100)	29 (100)	29 (100)	26 (100)	16 (100)	2 (100)

그렇다면 이러한 방송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다음 신동아 기사를 인용해보자.⁶⁷

RFA는 미국의 방송평가회사인 ‘인터미디어(Intermedia)’를 통해 남한 귀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청취경험 및 소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한다. 200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대졸 이상 엘리트 가운데 절반 정도가 RFA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사회교육방송의 조사결과는 보다 더 구체적이다. 사회교육방송이 개국 55주년을 맞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취행태조사에서, 설문에 참가한 탈북자 103명 가운데 69명(67%)이 “북한에 있을 때 (사회교육방송을) 청취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중 42%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들었다”고 답변함으로써 사회교육방송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폭넓게 청취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탈북자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사회교육방송 설문에도 참여한 바 있는 ‘탈북자동지회’ 김성민 사무국장은 “조사샘플을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주민의 67%가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민군 대위로서 선전대 작가로 일했던 그는 “일반 주민들 가운데 라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정도 수치에는 미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추정해보자면 “5% 정도만 듣고 있어도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I
II
III
IV
V
VI

⁶⁷ 손광주, “미국의 라디오 전쟁사령부 RFA정체: 효과만점 대북 압박카드 김정일 몰락 노린다.”

V. 우리나라 대북방송 및 대북홍보전략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과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극동방송, 그리고 미국 NED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작은 민영방송국 등 6개의 대북방송국이 있다. 그러나 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은 대북방송으로서의 전략적 기능은 거의 포기한 채 문화와 남한 뉴스 보도에 치중하고 있으며 기독교 선교방송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홍보방송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북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송출하는 RFA와 VOA 등 두 개의 국제홍보방송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대북방송은 냉전시기 RFE/RL 등 전략적 국제홍보방송의 풍부한 경험과 막대한 재정적 지원,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 대북방송이 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최근 두 개 대북방송의 예산과 인력이 대폭 보강되고 있다는 점, 참고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⁶⁸ 미국의 국제홍보방송이 내부 감사와 청취율 조사, 독립적인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를 통해 치밀하게 그 성과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방송 평가 자료들은 비밀자료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러한 평가에서 대북방송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추가 예산 지원이나 인력 보강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방송 편성 내용이나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뉴스의 객관성, 정확성과 신속함, 다양한 콘텐츠 구성, 심도 있는 기획 및 특집 프로그램, 심층적인 전문가 논평 등 돋보이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 대북방송은 미국의 정치적 이념인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에 대한 보편성

68. 부록 참고자료 <RFE/RL 및 VOA 사업에 대한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유럽소위원회 청문회> 참조.



을 방송이념으로 충실히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자 장점이다. 이 점에서 대북방송을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한 정치적 선전방송이나 미국적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은 그 다지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개혁 개방이 필연적 국가과제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북한인권 개선 또한 유엔 회원국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대북방송의 보편적 가치이념이 정권 붕괴의 수단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북한체제의 ‘경착륙’을 오히려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대북방송은 보다 강화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북방송 문제는 이러한 미국 대북방송의 심리전 효과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고 있는가, 대북 방송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대북방송의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피는 것이다.

미국 대북방송의 궁극적 목표는 신뢰성 있는 뉴스와 다양한 정보의 유입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변화이다. 특히 RFA는 대체방송으로서 북한 내 뉴스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탈북자 및 다양한 뉴스정보원으로부터 다양한 내부 정보와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반면, VOA는 미국에 관한 정보와 국제사회 소식을 전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 구분은 북한뉴스 보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VOA도 중국내 탈북자 실태에 관한 심층 보도 등을 송출한 바 있으며 탈북자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북한내부 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미국 대북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보도 원칙이다. 즉 북한 공영방송을 대적으로 북한 청취자의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VOA의 경우는 보다 철저하게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한다.

I
II
III
IV
V
VI

로 조사되었으며 일단 모든 뉴스보도는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확인되어야 한다. 두 방송국 모두 서울에 주재원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뉴스 편집 및 현장 취재 기자 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어떠한 보도 지침이나 선전지침 등을 배제한 채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관점에서 취재기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있다.

두 번째로 뉴스 컬럼과 다양한 심층취재 보도로 북한 사회를 철저하게 해부, 분석하고 있으며 핵문제, 인권문제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쉬운 어체로 방송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안을 뉴스보도로 정확하게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는 뉴스 가치와 이념적 프레임을 전파하고 있다. 미국 대북방송은 이러한 점에서 뉴스방송이 아니라 가치방송이다.

세 번째, 인터넷과 UCC, 멀티미디어 등 신미디어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RFA나 VOA 모두 매우 잘 꾸며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공급하고 있다. 일일 방송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 텍스트 및 음성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블로그, UCC 동영상, 쌍방향 소통채널 및 실시간 의견 청취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RFA 전 국장은 필자에게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 다수로부터 방송 청취 소견 및 감사 편지를 받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국 대북 방송은 미국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구시대 선전 방송이 아니라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배경으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고도의 쌍방향 전략-심리전 방송이다.

네 번째,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가치 및 목표지향적 방송편성 원칙이다. 미국의 국가이익보다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 등 보편적 가치를 미션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두 방송은 모두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란,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 홍보방송과 비교할 때 RFA 대북방송의 경우 이념적 지향이 보다 뚜렷하다. 철저한 사실보도와 함께 두 방송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견인한다는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RFA는 이러한 점에서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탈북자 사회에 대한 소개, 탈북자 인터뷰 및 성공사례 심층 보도, 탈북자 논객을 통한 북한 사회 진단 및 비판, 재중 탈북자 인권실태 폭로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북한사회 내부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방송은 분명히 위협적이다. 북한의 전파방해에 대해서 RFA는 기술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행사하고 있다.⁶⁹

현 단계에서 북한의 열악한 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 대북방송이 가시적인 동원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예측은 성급할 수 있다. 즉 라디오 보급률, 외부 방송 청취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통제, 전파방해, 송출 중계소 및 전파감도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방송의 영향력은 북한 내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BBG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VOA나 RFA의 언론 재인용도, 신뢰도는 향상되고 있다.⁷⁰ 국내 언론에서도 북한뉴스나 미국 정계 동향 보도 부분에서 RFA 인용 횟수가 증대되고 있다. 미국 대북방송은 이제 북한 뉴스, 한반도 미래와 관련된 핵심 이슈 영역에서 우리나라 방송을 ‘대체’할 수 있다. 미국 대북방송의 영향력은 이제 한반도

⁶⁹- 위 부록 첨부자료 참조.

⁷⁰- BBG는 RFA의 보도내용이 WSJ 등 미국내 주류언론에서 뉴스소스로 재인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BBG Annual Report 2008*, pp. 15~16.

전역과 탈북자 사회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와 홍보방송 전문가들은 미국 대북방송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전략적 강점들을 연구하고 이들 방송과 경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북방송, 홍보방송 수행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정부는 1만 7천명에 가까운 탈북자 사회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통일 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공조’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북한에 대한 어떠한 보편적 가치 확산도 자제하고 있다. 대북 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매우 낮으며 전문가와 세부적인 연구조차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KBS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의 구조, 인력 및 방송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또한 통일부, 국가정보원, KBS, 국방부, 외교통상부, 방송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정부기관 등의 대북방송 필요성과 성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북방송의 이념적 원칙, 제도, 방송 인력 및 기술적 지원체제, 효율성 검증체제 등을 수립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이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고와 치밀한 전략, 국제사회의 지원, 효율적인 제도운영 및 자원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가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자칫 냉전시대 이념경쟁의 낡은 유물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미국 대북방송은 이러한 우리의 시각이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VI. 참고자료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유럽소위원회 RFE/RL 및 VOA 청문회 자료*]

**HEARING OF THE EUROPE SUBCOMMITTEE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UBJECT:
RADIO FREE EUROPE/LIBERTY AND VOICE OF AMERICA:
SOFT POWER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의장: 로버트 웨슬러(민주당, 플로리다)

증인: 제프리 개드민(JEFFREY GEDMIN, PH.D.)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사장; 댄포쓰 어스틴(DANFORTH
AUSTIN), VOICE OF AMERICA 국장

장소: 워싱턴 DC, 하원 레이번 빌딩 2172호

일시: 2009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 **웨슬러 의장:** 유럽 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제프 개드민 자유유럽방송/ 자유라디오 사장(RFE/RL)과 댄 어스틴 미국의 소리(VOA) 방송 국장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의 해외방송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해외방송이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만, 언론자유와 국제홍보방송의 가장 뛰어난 열정적인 지지자 두 분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정말 행운입니다.

사실 국제홍보 방송의 역할, 내용, 범위와 독립성 등에 관해서 그동안 의회, 행정부, 국제방송위원회, 그리고 방송인들 사이에서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논의가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의 국제홍보방송은 지금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외교정책 문제들을

* Copyright (c) 2009 by Federal News Service, Inc.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스마트 파워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만연되고 있는 반미감정,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목도 되는 언론자유 의 퇴보현상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입니다. 오늘의 청문회는 이란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질식시키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RFE/RL 그리고 VOA는 다양한 외국어와 포맷으로 걸리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대체언론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들은 미국의 국제홍보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중요한 스마트 파워의 수단들입니다.

나와 나의 의원동료들은 이란,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언론통제와 언론검열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전세계 각지에서 뉴스보도와 다른 형태의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는 개인들을 지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트위터혁명과 이란정권의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언론자유 억압은 언론매체의 침투성이 독재정권의 통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홍보방송을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는 미국 국제홍보방송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이러한 방송매체들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의회는 미국의 기술 수출, 특히 그러한 첨단 기술들이 인터넷 등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

I
II
III
IV
V
VI

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많은 미국인들은 언론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RFE/RL은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천만 주민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지역방송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아직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VOA와 RFE/RL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최근 프라하에 있는 RFE/RL 본부를 방문했을 때, 나는 아프가니스탄 라디오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아주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간 방송 담당자를 마주한 자리에서 나는 아프가니스탄 청취자들로부터 전달된 전화, 이메일, 문자전송, 심지어 문서두루마리들을 보고 RFE가 청취자들과 직접적인 쌍방향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증언자들은 물론 국제홍보방송이 어떠한 위협요소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언론인이 자주 위협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VOA와 RFE/RL은 매체든 기술이든, 전파방해를 통해 프로그램 전달을 저해하려는 어떤 정부들의 24시간 협력체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VOA와 RFE/RL은 어렵고 역동적인 국제 정보환경 속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칭송받을 만합니다. 나



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두 사람의 노력과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VOA 든 RFE/RL이든 “미국과 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보도와 정보,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전세계 청취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귀사의 미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여러분의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략)

- ▶ 조 월슨 의원(공화당-사우스 캐롤라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양당 일치적인 합의에 도달할 지 모릅니다. 나는 정당소속을 불문하고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이 VOA와 RFE/RL의 노력을 진심으로 치하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두 분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누가 20년전, 즉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전임자들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노력들이 지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코의 하벨 대통령이 말했듯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진전되었으며 그러한 정신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작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갔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그들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특히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기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내가 중국어 서비스 파트에 갔었을 때, 저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I
II
III
IV
V
VI

플라잉 타이거를 타고 근무했던 시안이나 쿤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나는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텔레비전 방송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세계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의 이점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칭송하고 싶습니다. 나는 웨슬러 의장과 함께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당이 다른 우리가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략)

- ▶ 데이비드 스캇 의원(민주당-조지아): 감사합니다, 의장님. RFE와 RL, 그리고 VOA는 미국의 해외홍보를 위한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나는 종종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RFE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이 기관들은 CNN이나 FOX 뉴스채널 같은 케이블 방송이 없었던 시기부터 활동하였습니다. VOA와 RFE는 미국이 대변하고자 하는 것을 빗처럼 비추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정치가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변하기보다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세계 속에서 누가 무엇을 파는가, 즉 우리가 무엇을 팔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때때로 새로운 인상(re-branding)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근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이 진정 ‘언덕 위의 빛나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온 세계가 알도록 새로운 인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RFE, RL 그리고 VOA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도하든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하든지, 그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즉 미국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RFE와 RL, 그리고 VOA는 세계가 우리에게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구성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라는 브랜드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자주 다른 나라를 가보는 데요, NATO 의원연합회 등의 일로 일년에 서너 차례 나가보면 바로 그곳에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념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들의 명성에 입혀진 피해들을 복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홍보방송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빛나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상징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 또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을 새롭게 상징해야 합니다. RFE와 RL, VOA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나는 최근 그러니까 두 달 전, 아니 한 달여 전에 중국 국민들에게 연설하기 위해서 VOA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중국이 세계적으로나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들의 미래

I
II
III
IV
V
VI

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설문을 준비하느라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직접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NATO가 직면한 도전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RFE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경험과 서구 미디어를 접하기 어려운 전세계 청취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작업을 직접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그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또한 나의 동료의원들에게 그들을 지지하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션을 달성하도록 인력과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자원들이 제공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앞장 설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지도국이며 우리는 국제사회 전체에 걸친 우리들의 노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 국가들은 당연히 자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RFE, RL, VOA는 바로 그러한 자국민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중 략)

- ▶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심할 바 없이 네오 막시스트들, 극좌파들은 전세계에 걸쳐 미국의 명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 방송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외교정책의 몇 가지 실패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항했던 독재 정권의 방송,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방송의 번역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외교정책에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냉전 시기 때처럼, 만약 우리가 국제사회에 개입하여 주민들이 현지 대체방송을 통해 진정 알고자 하는 것을 접할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한다면 RFE나 RL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전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방송을 보내야 한다는 법안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포탄이 세르비아에 떨어질 때까지 그러한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하였습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데스크는 거부되었습니다. 방송에 대한 세르비아의 국익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주민들이 들었던 것은 증오의 방송이었습니다. 내가 내전 기간 동안 전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을 때, 한 크로아티아 언론인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침내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서와 달리, 사람들은 이야기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하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희생하지 않고 선거에 의해서 나라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RFE/RL이 슬로바키아와 체코 사람들이 이러한 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가장 큰 실수는 그러한 방송을 이 지역에

I
II
III
IV
V
VI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자유아프가니스탄 방송을 위한 입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군 지도자인 마수드가 죽고 미국이 마침내 탈레반이 운영하는 증오방송인 사리방송에 대항하는 무언가 대체방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분명하게 된 것은 그러한 입법 노력이 시작된 지 5년이 흐른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사리방송은 분명히 알 카에다나 다른 이슬람 과격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송들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만연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확대를 지향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국내적으로 비일관적인 정책 때문에 장애가 있으며 이제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텍사스의 한 회사는 중국정부에 우리 해외방송을 방해하는 장비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티니안 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계탑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압적인 정권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교류가 자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능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지 통신원들, 즉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있게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프라하 본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통신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자원을 전개하고 방해전파를 압도함으로써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 나는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이 곧 전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지합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중동국가들이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소수 과격 이슬람 세

력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보전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행한 사실은 70% 정도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자유아프가니스탄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지사람들은 사리방송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 ▶ **알비오 사이레스 의원 (민주당-뉴저지주):** 감사합니다, 의장님. 나는 현안에 대해서 나의 동료의원들과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의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진실을 믿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년전 나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지를 다른 동료 의원들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들에 대한 현지 사람들의 칭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즉 외부 세계가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웍슬러 의장:** 감사합니다...이제 오늘 청문회 증인들의 간단한 약력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증언자로서 RFE 사장이신 제프리 개드민(Jeffrey Gedmin)박사님을 소개합니다. 2007년 현직에 부임하기 이전 개드민박사는 베를린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 소장,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원, 또한

I
II
III
IV
V
VI

신대서양이니셔티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환대서양 민주주의 확산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 정책 실무자, 언론인, 기업인들과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개드민 박사님은 미국의 외교정책 및 공공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을 미국과 유럽의 주요 학술지에 기고한 바 있으며 “숨겨진 손: 고르바초프와 동독의 몰락”이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개드민 박사님은 1995년 PBS 텔레비전 수상작인 “독일인: 새로운 국민의 초상”, “스페인의 9/11 그리고 유럽의 이슬람 급진세력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실무편집인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했습니다. 개드민 박사님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독일 지역연구 및 언어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증언자는 댄 어스틴 선생님인데요, VOA 국장님입니다. 이 분은 36년 동안 다우존스 회사에서 공동체 언론자회사 대표로 근무하셨다가 지난 2006년 현직에 부임하셨습니다. 또한 다우존스의 회사협력실(Corporate Relations) 담당국장 및 회사 잡지사 부대표로 근무하신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달라스 지국, 뉴욕 등지에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어스틴 선생님은 ‘스마트 머니’라는 공동 벤처 잡지의 이사 및 총무국장, 부회장으로 재직하신 바 있습니다. 또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시며 브론즈 스타 및 에어 훈장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개드민 박사님 시작하시죠.

- ▶ 개드민 박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훌륭하고 강력한 지지의 말씀을 해주신 의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서는 최근 RFE 프라하



본부를 방문하신 바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사의 아프간 서비스, 특히 우리가 매주 받고 있는 몇 개의 백 속에 담긴 아프간 청취자의 반응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이스 의원님께서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의원님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주도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스 의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점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셨구요, 그와 같은 청취자와의 쌍방향 교류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시고 또 친절하게 인터뷰도 수행하셨습니다.

(중 략)

나는 최근 20대 초반 쯤의 한 체코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의 직업을 물었고 나는 RFE에 근무한다고 했지만 그 분은 RFE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방송국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자 “아,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의 할아버지는 2차 대전 이후 체코에서 진행된 변화, 공산주의, 독재정권 등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 하고 화가 나셨지요. 어느날 라디오를 들어서 창문에 매달아 놓고는 거리 아래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실을 말하려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꾸며낼 수 없을 거예요. 즉 다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끌고 갔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RFE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I
II
III
IV
V
VI

민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사실 상 거의 항상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 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자유언론의 힘,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의, 자유의 불가분한 요소로서 말입니다.

단지 20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체코 프라하 그곳에 소련 공산주의, 베를린 장벽, 철의 장막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원 분들께서 잠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그곳을 다녀오셨습니다. 나는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깊이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코 공화국은 NATO 회원국입니다. 또한 EU 회원국이기도 하지요. 체코는 문화교류 및 상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의 주요한 우방국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중 략)

담배골초인 희곡작가가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마침내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 체코 대통령인 하벨씨는 프라하에 있는 우리 회사 빌딩에 들러 아프간 책임자, 이란, 보스니아,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 책임자들과 함께 앉아 편집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지 믿을 수 있고 정확하고 진실한 뉴스보도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방송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의 단초가 되는 지성인의 각성과 도덕적 자극이 된다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의장님, 저는 두 가지 결론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 가족을 포함하여 미국인들이 혹은 내가 여행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즉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어떠한 근거로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이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나는 물론 우리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댄 어스틴 VOA 국장의 입장도 비슷할 것입니다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은 미국의 이상주의 전통과 이념을 대변하는 사업을 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의 가치를 지지하며 또한 이것은 대부분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의 여기 저기, 혹은 미국을 여행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싫어하고 방송이 선동적이고, 혹은 어떤 가치를 주입하려고 시도하거나 정치공작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이 일은 기독교 선교사업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거나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항상 작은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국가의 정부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님, 이것은 유엔의 인권선언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다른 국가에게 지령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당문서도 아닙니다. 이 선언문의 19조에 보면 세계 모든 지역의 시민들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고 써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어떠한 정보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I
II
III
IV
V
VI

미국이 옹호하는 가치이며 또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이상주의적인 가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합니다. 제가 믿는 한 우리의 사업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인류번영과 민주주의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족주의나 극단주의와 싸우려고 한다면, 혹은 반유대주의나 반미주의와 싸우려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책대안과 방법론을 사 용해야 하는 정책결정 책임자라면, 정보의 자유, 자유로운 토론과 반 대의 자유 등이 지구상 어떤 지역에든지 그 어느 때라도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미 국무장관이 이번 여름 프리하에 왔을 때, 우리 방송은 스마트 파워의 전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투입된 자원에 대비한 효과라는 측면이라든지 혹은 그 효과성을 본다면 분명 (해외홍보방송은) 스마트 파워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댄씨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효과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살폭탄 테러가 언제든지 예상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의 방송을 듣고 난 이후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아마도 매우 심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인 키예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성건강 보호를 위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염문제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보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 청취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만약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오염된 도시에서 그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제기하시겠습니까?

글쎄요, 20여년 전에 유럽의 일부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었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대통령은 유럽이 하나이고 자유로운 공동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절반의 성공을 완수한 셈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60%, 아니 47% 정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방송하는 국가들에게도 봉사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RFE/RL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업을 더욱 잘 하도록 하는 지원을 제정합니다. 오늘 아침 토론을 통해 많은 성과를 산출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어스틴 국장:** 존경하는 소위원회 위원님, 나는 오늘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한 본질인 자유로운 정보와 의견 및 사상교류에 있어서 VOA가 기여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단 기록을 위해 장문의 증언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짧막하게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I
II
III
IV
V
VI

- ▶ 웨슬러 의장: 네, 반대없습니다.
- ▶ 어스틴 국장: VOA는 1942년 나치 독일을 향해서 “우리 뉴스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려고 합니다”라는 첫방송 멘트를 시작한 이래 미국식 방송의 전형으로 신뢰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VOA는 전세계 45개국어로 라디오, 텔레비전 및 인터넷과 다른 사회적 미디어 포맷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미국 최대의 국제홍보방송입니다.

사실상, 오늘 청문회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직원이 VOA 뉴스 트위터와 VOA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전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VOA의 일반 청취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1억 3천 4백만명의 청취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억 3천 4백만명의 청취자 모두가 미국을 좋아한다거나, 혹은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정기적으로 듣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세계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또 그들의 국가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와 뉴스를 듣기 위해서 우리 방송에 의지하고 있으며 우리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프로그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정책, 문화 및 미국인에 대한 그들의 이해심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VOA현장과 미국의 국제방송법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많은 청취자 및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총괄적인 뉴스보도뿐만 아니라 믿을 만하고 권위가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보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엄격한 기준에 의한 뉴스 및 정보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요즘 다른 언론이 자주 하는 것처럼 오보나 역정보(disinformation), 팽팡 올려대는 선전방송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시청자로부터의 신뢰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VOA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1,300여 정규 직원 및 수백명에 달하는 전세계 현지통신원 및 계약직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주 1,500여 시간에 달하는 방송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용기있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탈레반은 파키스탄 서북부 국경지대에서 VOA 현지 특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지 뉴스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이곳 게릴라들은 단지 그가 VOA에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라만 부나이리의 집을 약탈하고 폭파하였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다섯 명의 언론인들이 살해당했는데요, VOA 현지 통신원들은 끊임없이 Al-Shabaab 테러리스트들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발칸, 이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는 최근 전체 VOA 청취자의 절반 정도가 텔레비전 프로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에서는 전체 국민의 96% 정도가 매일 TV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30% 정도는 VOA 페르시아어 프로를 시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바니아에서는 단지 코소보 지역만을 예를 들면 64%가 VOA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우리 해외 홍보방송은 물론 VOA의 특별한 관심 지역입니다. 텔레비전과 다른 언론매체, 라디오 송신국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러시아 지역방송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

I
II
III
IV
V
VI

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VOA로 하여금 전통적인 전달방법에 대한 관점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는 멀티미디어, 웹에 기반을 둔 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최근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미-러 관계가 매우 중대한 국면에 있는 요즈음, 이러한 전략은 러시아 청취자들에게 미국의 정책과 정치, 미국문화와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러시아에 대한 관점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소위 이러한 web 2.0 틀을 통해 청취자 상호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는 러시아 시장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VOA 러시아 유튜브 사이트는 월 6만명이 접속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65% 정도가 우리 유튜브 사이트의 비디오 자료에 대해서 별표 5점의 평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표 5점은 최고점수이지요.

최근 이란의 소요사태와 파키스탄/아프간 국경지대의 분쟁문제 등은 우리들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VOA가 도입하고 있는 전통적 미디어와 신미디어 융합능력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러한 중요지역에 대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노력의 하이라이트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상영)

의장님, 마지막으로 VOA와 미국의 해외홍보방송에 대한 의회의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계에 빛을 비추는 역할, 특히

바로 우리들이 대변하는 미국과 미국인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웍슬러 의장:**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어스틴 국장님, 우리 위원들과 방청객들에게 왜 우리가 두 개의 해외 방송을 운용해야 하는지, 서로 보완적인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어스틴 국장:** 의장님, 기꺼이 설명드리지요. 그리고 제프 박사도 제 설명에 보충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방송이 매우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RFE/RL은 지역 대체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VOA는 좀 더 국제 뉴스 방송 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 현지 뉴스를 보도합니다만, 우리는 전체적인 지역과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현지 뉴스를 취급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미국정책, 미국인과 미국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 방송은 서로 다르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어느 주어진 날의 방송 내용을 비교한다면 이 점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가 상대방의 미션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개드민 박사:** 매우 완벽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것을 재확인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댄과 저를 포함해서 방송진 모두, 우리는 청취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매우 주의깊게 듣고 있는데 현지 대

I
II
III
IV
V
VI

체방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정보, 즉 믿을 수 있고 정확하며 동시에 공정한 뉴스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체방송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였듯이 우크라이나에서 모성보호 문제, 혹은 환경오염 문제, 아마도 부패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이면서 국내적인 발전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독립적인 매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산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향후 제도화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며 이러한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댄 국장이 지휘하고 있는 VOA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CNN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고 다양하며 풍부한 프로그램을 희망합니다. 미국사회와 미국인의 생각, 미국문화 및 미국 정치에 대한 심도있고 믿을 수 있으며 사려깊은 통로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나는 두 방송이 비록 서로 다른 것일지라도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 **웍슬러 의장:** 감사합니다. 나는 좀더 세부적인 질문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이스 의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최근 중 유럽의 매우 저명한 정치인들, 바웬사와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을 포함

해서 오바마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요, NATO 및 현대 서양관계 재강화방안을 주문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개입정책이 중부 유럽 관계의 희생을 댓가로 해서 안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들의 편지에서 세계와 닿은 것은 앞으로 이들 나라들이 5년 혹은 10년 뒤 직면하게 될 외교정책이나 국내정책에 있어서의 도전이라는 점에서 제기되는 불길한 생각들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대러시아 관계나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점들이지요.

이 서한에 서명한 분들은 모두 과거 민주화운동 및 인권운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대다수 철의 장막을 거두어 내는데 기여한 핵심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제홍보(public diplomacy)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제안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드민 박사님이 앞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듯이 20년 전에 우리들은 오늘날의 체코공화국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 이러한 중부유럽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국가적 진화의 다음 단계로 전망할 수 있는 과정에서 국제홍보, 국제홍보방송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개드민 박사: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
II
III
IV
V
VI

우선, 만약 동맹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유럽의 민주국가들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만, 동시에 중심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변부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중심부가 굳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심부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굳건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유럽 전체를 자유지대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아직 완수된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사진이나 프라하에 있는 직원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 동남부 유럽이나 발칸제국 쪽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년 2개월 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나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 증대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란이 남쪽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극단주의의 확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삭감은 우리 이사진이나 연방국제방송위원회(BBG)나 모두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남부 유럽, 발칸지역을 포기하고 몰도바를 떠나는 것은 큰 실수이며 아직 때이른 것입니다. 우리 방송은 아직 이 지역에 있으며 향후에도 그렇



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전략적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벨이나 다른 분들이 보낸 편지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 즉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극단주의가 언제 다시 일어나고 언제 확대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댄에게 잠시 뒤 답변 차례를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곳에 가야 합니다. 떠나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특히 우리 부통령께서 벨그라드와 코소보를 일찌감치 방문한 것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벨그라드에 갔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정치세력들이 미국이 그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의 안정과 안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미국 부통령께서 러시아에 가는 길에 우크라이나, 조지아에 들르신 것을 또한 치하합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을 알리는 심볼이며 분명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기 어려운 안보문제에 집착하는 냉정한 정치현실주의자가 되거나 아

I
II
III
IV
V
VI

니면 상업적 관계만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잘못된 이분법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보도 챙기고 동시에 상업적 관계 및 기업의 이해관계도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권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고 심각한 자세로 접근한다면, 그런 정책목표 선택지의 한쪽에는 경제발전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들은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러시아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거나 아니면 그 이웃나라들, 코카스나 중앙아시아든지 대체로 말해서 우리는 안보를 지향하는 냉정한 정책도 필요하고 동시에 인권정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이나 상업관계와 함께 말입니다. 즉 인권과 법의 지배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 냉전시기에 행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상회담도 했고, 군비통제도 했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문제들, 상업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번도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 문제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지역에 머물러야 하며, 개입정책을 유지하고, 이런 문제들이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하나의 통합된 정책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 **어스틴 국장:** 제프 박사는 정말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은 국무성의 관리들이나 다른 부서 공무원들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단지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즉 이러한 다른 지역들에서 우리 두 방송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정보 욕구가 존재하고 이러한 정보욕구들이 거의 충족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특히 러시아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러시아 국민들과 대화를 지속해 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매우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여준 바 있으며, 지금 다시 정치게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 등등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그들은 크레믈린에서 말하는 것의 전부를 신뢰하거나,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RFE/RL이나 VOA의 입장에서 그곳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지속해 갈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취자 전화프로그램이나, 지금 러시아에서 한창 유행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들은 대화와 개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일방적인 소통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이지요.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에서는 RFE/RL은 상당한 라디오 청취층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수의 텔레비전 시청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말하고 당신은 듣는다는 식보다 쌍방향적이고 보다 청취층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물론 개입의 수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웨슬러 의장: 감사합니다. 로이스 의원님.

▶ 로이스 의원: 감사합니다. 개드민 박사님, 이란 정부는 유럽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열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서먼 의원과 저는 유럽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미국정부와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러한 법안을 RFE/RL이나 혹은 RFA 방송에 대한 전파방해를 기도하는 북경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개드민 박사: 의원님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RFA에 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회사의 자매회사이지만 또 다른 회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대체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는 모두 적대적인 정권, 비민주적인 지도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란, 제 생각으로는, 자유무역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러하시리라 믿습



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자본주의가 규제나 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로 되돌아가서 본다면, 가치나 관습 혹은 행동에 의해서 절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형식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습이고 가치이며 행동이지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비록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기업 대표들에게 그들의 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개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 로이스 의원: 만약 당신이 그러한 기업들 명부, 기업 대표든 혹은 그런 기업들의 실무자 이름 등을 주실 수 있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서만 의원, 또 아마 웨슬러 의장님도 분명히 그런 기업 측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 ▶ 개드민 박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로이스 의원: 매우 감사합니다.
- ▶ 개드민 박사: 저는 일종의 이상주의자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기업인들은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의로 돈을 벌려고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사업이 의도하였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I
II
III
IV
V
VI

둘째, 만약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럽 사업가들은 특히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말하자면 공공정책이나 가치,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은 이런 제재를 보다 확대 적용할 것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한편으로는 당근과 채찍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는 모두 인간이구요, 조세정책이든, 제재정책이든 정책은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이스 의원: 개드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질문은 현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 구도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정부가 몰락하고 난 뒤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카불 자유아프가니스탄 방송국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Dari)어를 말했는데요, 사실상 대이란 서비스를 하는 자유아프가니스탄 방송국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나는 시아파가 분명히 탈레반의 증오방송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우리 방송의 현지 국장인 알리 잘라리라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나는 이것이 외교정책에서 가장 덜 대항적인 방법이자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개입하고 있는 지역으로 점차 확산시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란이 분명히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적 개입에 대해서는 물론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도 분명 조금은 그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홀부르크 대사께서 사실은 스왓밸리에만 150개의 FM방송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르완다의 대표적인 증오방송인 ‘Radio Mele Kalim’ 아시리라 믿습시다만, 이것과 그들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격차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격차들이 좁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의 선전방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드민 박사:**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후에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방송을 수행하는 단국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선, 러시아나 이란 같은 국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보전을 의미하는 연성파워, 스마트 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와 그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보스니아에 새로운 FM방송국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방송은 민주주의를 신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원주의나 관용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지요.

이런 사례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로이스 의원님은 자유 아프가니스탄방송국을 설립한 분이시죠. 아마도 저보다 현지 사정을

I
II
III
IV
V
VI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긍정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창출하는 우리 서비스의 사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비스의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구요. 웨슬러 의장님께서 프라하 방문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카불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일상적인 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다음 주 대학 입학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학교에 장애인 접근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은 공정한 처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장관이 우리 방송국에 출연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장애인 접근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구요. 때때로 전향한 자살폭파 시도자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민적 지향의 언론이나 대중매체 목적 방송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런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프간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글쎄요, 제프 개드민 씨, 이 나라는 앞으로 금방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미주의를 경감시키고 극단주의를 배양하지 않을 수 있는 종교적 관용, 가치, 관습, 행동을 받아들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나라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나타

날 것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들은 분명한 성과를 감지할 수 있으며 그것은 비용 효율적이며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자유 아프가니스탄 방송이 없다면, 그런 시장은 없게 되겠지요. 웨슬러 의장님이 언급하셨듯이 만약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매주 받는 몇 개의 백 속에 가득찬 편지들, 시와 음악, 생활스타일, 여성의 권리, 종교적 관용 등에 관한 그런 편지들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항방송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은 매우 효율적이고 실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이란 방송을 흉내내고 우리들의 언어를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제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들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악의적인 경쟁입니다.

나는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비용 효과적입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이나 20, 30년 전을 되돌아보고 “그거야 당연하지”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에서 미국인들은 실로 이러한 사업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덴, 좀 더 이야기를 이어 주시겠어요?

I
II
III
IV
V
VI

▶ 어스틴 국장: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지요. 모든 주민들이 푸시툰어를 말하는 파키스탄 스왓밸리 지역에서 최근에 디와(DIWA)라디오방송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6시간씩 방송을 송출합니다. 아침에 3시간 추가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프차 뒤에 작은 중계기를 달고 지역 각지를 돌아다니는 샤리아 FM방송 직원들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특급 차원의 심리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방송의 영향력을 측정하거나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전화프로그램의 응답자 수는 하루 300통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핸드폰 등으로 코멘트를 하거나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어느 정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프와 그의 동료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지원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을 억제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프가 잘 지적했듯이 VOA는 라틴 아메리카,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순방했습니다.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엘 살바도르 등지를 다니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의 동향을 살핀 바 있습니다.

유고 체바스의 영향력은 분명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텔레수어(TeleSUR) 네트워크 능력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나는 호텔 방에서 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만, 괜찮고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프씨가 말했듯이 그것은 교묘하고 번지르한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언론인이나 주민들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 그곳 언론인들은 모랄레스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 우리에게 저런 언론탄압이 들이닥칠까”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라에서 애국적이지 않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언론폐쇄, 혹은 발행중단 명령서를 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에서는 분명히 언론탄압이 지방방송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글로보비전(Globovision)이라고 하는 마지막 거대 케이블 방송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이란 같은 곳에서는 두 방송이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엄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인터넷 문제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나라들은 웹사이트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이 점차 모든 사람의 경제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통제는 그들 자신의 이익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란에서 지난 선거기간 동안 우리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방해로 상당한 정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측 기술자들 말로는 이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방송 전파시그널을 자신들의 국영방송 쪽에 가깝게 변동시켜놓아서 자신들의 방송도 방해받고 있다는 거죠.

I
II
III
IV
V
VI

우리는 프록시 서버나 P-to-P 디바이스를 통해 인터넷에서 할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노력들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일 학습효과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략)

- ▶ 스캇 의원: (중략) 이란 정부의 외국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후 여러분 방송국에 입수된 보도, 비디오, 사진자료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방송국이 이란에서 그곳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이란 전역에 걸친 비판과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 ▶ 어스틴 국장: 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당연히 대응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란 사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두 블록 떨어진 코헨빌딩에서 우리들은 매분 단위로 진실인 것 같이 느껴지는 비디오를 수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시다시피 UCC(개인제작 콘텐츠), 혹은 시민 언론이라고 부르는 자료들이지요. 이것들은 조작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영상자료들을 면밀하고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였던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 촬영장소, 시간 등을 확인하고 과연 자료들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기술진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특히 좀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확인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방송을 보류합니다. 우리들은 폭력의 과잉상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스캇 의원: 제가 좀 부연 질문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확인절차가 이루어 집니까?
- ▶ 어스틴 국장: 우리가 만약 또 다른 취재원을 가질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테모사태에 대한 유선 방송이라던지, AP통신이나 프랑스 통신사 등 다른 현지 언론사 특파원 등,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도 있고요, 과거 보도 경험을 통해 믿을 만한 취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각측량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작보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중 략)

- ▶ 스캇 의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 개드민 박사: 우리 방송국의 감독기관은 BBG입니다. 이곳을 통해 연방예산이 지원됩니다. 우리 방송국의 경우 지원액이 전부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BBG 측에 예산문제에 대한 대답을 돌리도록 하겠

I
II
III
IV
V
VI

습니다. 다만 개략적인 답변만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FE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연간 약 9천만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9천만불의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21개 나라, 즉 러시아로부터 중동지역에 이르는 2천 5백만의 청취자들에게 좋은 가치와 정보, 이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 잠깐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국공영방송(PBS)예산을 제시하자면, 거기는 약 2억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9천만불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매우 비용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요청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것은 별로 그다지 엄청나지도 않고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일들을 올바르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좋은 사람들은 채용해서 이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감독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 ▶ 스캇 의원: 그래서 여러분 예산을 9천만불 요청하시는 겁니까?
- ▶ 개드민 박사: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입니다.
- ▶ 스캇 의원: 그 예산으로 21개국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어스틴씨는 어떻습니까?
- ▶ 어스틴 국장: 네, 2010년 회계연도 VOA 예산 요청액수는 2억 1천 1백만불입니다. RFE보다 대체로 두 배 정도 많은 액수이지요. 이



액수는 현재 예산 지원액보다 약간 상향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부 주요 지역에서 프로그램 제작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국가입니다. 우리들은 2시간 정도 텔레비전 방송 시간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 증액분을 내부적으로 조정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 략)

45개 언어로 약 1억 3천 4백만의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BBG 전체 예산에서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BG가 관장하는 전체 청취자 인구의 약 8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45개국 언어이지만 대상 국가 수는 이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대상 국가가 아니라 언어로 구분합니다.

- ▶ **웍슬러 의장:** 내가 좀 덧붙이자면, 1억 3천 4백만이라는 수치는 확인된 청취자 인구이구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얼마나 방송을 듣고 있는 지 잘 알 수 없지요. 청취자 인구정보라는 것은 탈북자들 등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보강될 수 있고 일화적인 자료들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델러헌트 의원:** (중략) 당신들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존재합니까?
- ▶ **어스틴 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감사국이 상시적으로 우리 언어별 방송을 조사합니다. 내부 감사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방송평가입니다...

I
II
III
IV
V
VI

외부 기관으로서 회계감사원(GAO: Gorem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국(OIG: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도 있습니다만, 연방기구 이외에 다른 독립적인 감사기관은 없습니다.

- ▶ 델러헌트 의원: 알겠습니다. RFE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다른 외부 감사기관은 없는 것이지요?
- ▶ 개드민 박사: 의원님, 그것은 VOA와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폐쇄된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 나라의 역사를 체험한 현지 언론인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델러헌트 의원: 저는 그 점을 잘 이해합니다. 나의 질문은 당신들도 그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일 수 있는 그런 평가나 조사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 ▶ 델러헌트 의원: 마지막 질문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비판적 견해들을 또한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 그런 것들이죠. 앞서 지적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나지만, ‘미국의 견해’ 라



는 문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미국의 견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것은 단지 어떤 개인의 견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 불일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스틴 국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방송의 기본원칙은 우리 청취자에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론과 반대의 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VOA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올바른 언론을 표명해야 합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반대와 불일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거에 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자신들의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 **부즈만 의원:** 감사합니다. 어제 이란에 대해서 많은 학자와 개인들의 견해를 들었는데요, 한가지 사실은 BBC가 많이 청취되고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우리들이 하고 있는 현지방송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급한 것 중에 방송국 본부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부다페스트던가요? 아, 아니군요. 프라하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란 같은 지역 대상 방송의 경우 그런 대도시의 경우 이런 저런 사

I
II
III
IV
V
VI

람들이 많이 왕래하다보니 방송인들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방송 본부를 이곳으로 이전시켜 보다 공격적인 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 **개드민 박사:** BBC나 VOA, 그리고 우리 이란어 방송인 라디오 파르다(FARDA) 모두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러 저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중략) 방송본부를 워싱턴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우 귀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 **어스틴 국장:** VOA의 페르시아뉴스 네트워크는 워싱턴에 있으며 200명의 상근 및 비상근 직원이 근무합니다. 우리는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는 이란 방송에 연간 1천 6백~7백만불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금년 3월에 텔레비전 방송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예산은 우리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BC는 대단한 방송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BBC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조사에 의하면 우리는 이란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업방송이 들으면 아마 상당히 부러워하겠지요. 지난 선거기간이 지난 뒤 혼란한 시기 동안 우리방송 청취율 조사를 실행하였는데요, 물론 이것은 전국을 커버하는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지만 대체로 전체 응답자의 50% 정도가 정보 취득을 위해 우리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BBC가 그곳에 진출하였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경쟁자가 될 것이지만, 방송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제프씨 견해에 동의합니다.

(중 략)

- ▶ 개드민 박사: 프라하에서 일하고 있는 이란 방송인들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말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지요.

얼마전 이란 정부는 급유배급제를 실시하였는데요, 전국 어디에서나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우리 직원이 사람들의 코 밑에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다 무슨 줄이지요?”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남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인데 지금 나는 5시간째 기다리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세금을 헤즈볼라에게 지원하고 있지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 정부는, 테헤란에서 공원 내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는데요, 그것이 단지 이슬람 율법에 대한 지도자의 해석에 상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단지 우리 방송만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청자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애완견을 가진 청취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기가 막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헤란경찰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중 략)

I
II
III
IV
V
VI

- ▶ 사이레스 의원: 이곳에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특정한 국가에 얼마나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 대상국가들은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협박이나 위협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장비가 있는지요?
- ▶ 어스틴 국장: 네,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아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청취 행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인데요, 다른 경우에는 탈북자들입니다. 물론 이 정보는 전적으로 신뢰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요. 이란의 경우에는 전화나 그런 통신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작위 샘플을 통한 조사기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적 조사를 통해서 보완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목표집단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 등이지요. 우리는 사외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취자 조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미디어 같은 제 삼자적인 사외 미디어 전문 조사기관은 RFE/RL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지만 또한 다른 국제 홍보방송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객관적이고 매우 전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은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 의미있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에 정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 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쿠바, 즉 말티스어 방송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쿠바에서 전화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쿠바에는 단지 인구의 12% 만이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가진 인구일수록 정부쪽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마이애미에서 쿠바에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 말티나 말티 텔레비전 방송을 들은 바 있습니까?” 이런 설문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사 역시 전체 인구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보도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쿠바 같은 곳에서는 물론 방해전파를 받고 있습니다...베네수엘라도 방해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매체의 배분수단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단파 방송 일부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방해전파 송출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방송송출 주파수를 많이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해전파의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방해전파 송출 중계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류가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유효하겠지요.

육지에서 우선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출하는 이란 등지에 대해서는 위성방송 배분방식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마이크로웨이브 장치를 부착한 트럭을 마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전파를 가까이서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소위 다운링크 방해전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시그널 방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성 자원을 통해 우리 전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보다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 문제는 콜로라도에 있는 우리 항공우주통제국 직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곳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응전략은 중계위성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 ▶ 사이레스 의원: 여러분이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자면, 그러한 예산 증액분을 중남미 국가에 있어서 차베스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 어스틴 국장: 우리들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현재 방송편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돈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그 지역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 사이레스 의원: 그러나 이미 차베스가 그의 관점을 전파하는 데 있어 우리를 앞질러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어스틴 국장: 네,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운용하는 텔레수스(TeleSUR)는 확실히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성장하였습니다...우리는 2010년 회계연도 예산 증액분을 새로운 텔레비전 방송망 구축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시장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영역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사이레스 의원: TV 말티(Marti)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라디오 말티(Marti) 문제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 ▶ 어스틴 국장: 네, 물론 방해전파 문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쿠바정부는 두 방송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쿠바 정부는 계속 우리들이 자신들의 방송 주파수를 간섭하고 있다고 국제통신기구(ITU)에 제소하고 있습니다.
- ▶ 사이레스 의원: 비행기를 사용하여 쿠바에 텔레비전 전파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다 효율적입니까?
- ▶ 어스틴 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구를 띄워놓고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전파에 쉽게 간섭을 받습니다. 록히드사에서 제작한 특수 비행기는 비행중에 UHF나 VHF 모두 송출이 가능합니다. 미국령 혹은 공해상에서 느리게 8자형으로 비행하면서 전파를 송출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쿠바정부가 방해전파로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I
II
III
IV
V
VI

- ▶ 사이레스 의원: 제가 이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제 친척이 쿠바에서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놀랐기 때문입니다.

(중 략)

- ▶ 어스틴 국장: 우선 사이버 공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난 공휴일 주말, 우리 서비스는 상당히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이버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그 강도에서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3~4시간 동안 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나서야 우리는 어디서 그 공격이 시작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격이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쪽 망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쪽 지역 사람들은 VOA를 청취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옛날 자료들이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감염된 자원들을 고립시키고 세계 다른 지역 청취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는 전략은 서버의 숫자를 2만 8천개 정도로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각기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접근거부 공격이 지속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는가? 네, 확실히 그러합니다.

(중 략)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하고 있는 과업의 영향에 관한 것인데요. 대통령은 지금 여행중입니다만, 러시아 사람들과 로마 G-8 정상회담, 아프리카 가나 등지에서 매우 중요하고 성공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이 그곳의 청중들에게 직접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관찰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을 지금 배우고 있으며 제 생각으로는 만약 젊은 층에 보다 집중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중요한 그룹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의 전략은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개드민 박사: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우선 댈 국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공격에 관해서는 작년에 심각한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며 워싱턴에 있는 국방성 DOA와 발틱 국가 중에 하나인 작은 민주국가 에스토니아로부터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토니아는 한 때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입었으며 그 이후 그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들은 미국의 거물이 자기 나라에 와서 도움을 청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인 톰 일베스는 전직 RFE 기자출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제인 반미주의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문제는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건국

I
II
III
IV
V
VI

이래 반미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시인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또한 반미인사로 유명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냐 냉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반미주의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자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적 관점으로 나온 그러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또한 메신저(전달자)도 중요합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 때문에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그 역할은 그 정도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즉 2-3년이 지나면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동맹국인 유럽이나 발전도상국 모두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반미주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작은 괜찮습니다만, 그 정도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 ▶ **웍슬러 의장:** 감사합니다...참석자 여러분 모두 오늘 아침 아주 훌륭한 포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개드민 박사와 어스틴 국장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년 365일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 여러분이 대표하는 방송국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끝 >

- 번역: 이 원 웅

참고문헌

1. 단행본

- 마이클 프리먼, 김철효 옮김.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2005.
- 이은미. 『해외방송 발전전략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2004.
- Belmonte, Laura A. *Selling the American Way: U.S. Propaganda and the Cold Wa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8.
- Cull, Nicholas J.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Deibel, Terry L. *Foreign Affairs Strategy: Logic for American Statecraf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Diamond, Larry. *The Spirit of Democracy*. Times Book, 2008.
-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ition*. Westview Press, 1998.
- Gitlin, T.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Glassman, James K. *U.S. international broadcasting on the frontlines of freedom*.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2008.
- Heil Jr. Alan L. & Alan Heil. *Voice of Americ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Local Voices/Global Perspectives: Challenges Ahead for*

- U.S. International Media*. Public Diplomacy Council, 2008.
- Hixson, Walter L. *Parting the Curtain: Propaganda, Culture, and the Cold War, 1945-1961*. Palgrave Macmillan, 1997.
- Horten, Gerd. *Radio goes to war: the cultural politics of propaganda during World War II*.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Kiehl, William P. *America's Dialogue with the World*. Public Diplomacy Council, 2006.
- Koppes, Clayton R. *Hollywood goes to war: how politics, profits, and propaganda shaped World War II movies*. Free Press, 1987.
- Manheim, Jarol B. *Strategic Public Diplomac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Evolution of Influ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Manning, Martin J.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propaganda*, Greenwood, 2004.
- Melissen, Jan. *The New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Palgrave Macmillan, 2007.
- Mertus, Julie A. *Bait and Switch: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Routledge, 2004.
- Nelson, Michael. *War of the Black Heavens: The Battles of Western Broadcasting in the Cold War*.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7.
-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Osgood, Kenneth.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of Kansas, 2006.
- Parta, R. Eugene. *Discovering the Hidden Listener: An Assessment of Radio Liberty And Western Broadcasting to the USSR During the Cold War*. Hoover Institution Press Publication, 2007.
- Puddington, Arch. *Broadcasting Freedom: The Cold War Triumph of Radio Free Europe and Radio Libert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0.
- Snyder, Alvin A. *Warriors of disinformation: American propaganda, Soviet lies, and the winning of the Cold War, an insider's account*. Arcade Publishing, 1995.
- Sorensen, Thomas C. *The Word War: The Story of American Propaganda*. Harper & Row Publishers, 1968.
- Taylor, Philip M. *British Propaganda in the Twentieth Centu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1.
- Urban, George R. *Radio Free Europe and the Pursuit of Democracy: My War Within the Cold War*. Yale University Press, 1997.
- Zakaria, Fareed. *The Future of Freedom*. W.W. Norton & Company, 2006.

2. 논문

- 박수길·박기갑. “인권과 국제테러리즘.” 박수길 엮음. 『21세기 유엔과 한국: 새로운 도전과 과제』. 서울: 오름, 2002.
- 빈센트, R. J. “미국의 인권외교에 대한 유럽과 제3세계의 대응.” 데이비드 D. 뉴섬 엮음, 김계수 옮김. 『미국의 인권외교』. 서울: 탐구당, 1988.
- 손광주. “미국의 라디오 전쟁사령부 RFA정체: 효과만점 대북 압박카드 김정일 몰락노린다.” 『신동아』. 46권 10호, 2003년 10월호.
- 전영선. 『대북방송 보도에 관한 연구: KBS사회교육방송과 RFA, FNK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디지털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Brzezinski, Zbigniew & William E. Griffith. “Peaceful engagement in Eastern Europe.” *Foreign Affairs*, July 1961.
- Cullen, Rovert. “Human Rights Quandary.” *Foreign Affairs* 71, Winter 1992/3.
- Entman, R. “Framing: Toward a Clarification of Fractures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1993.
- Koh, Harold Hongju. “On American Exceptionalism.” *Stanford Law Review* 55, 2003.
- McFaul, Michel. “Transitions from Postcommunism.” *Journal of Democracy* 16, July 2005.
- Schlesinger, Arthur. “Human Rights and the American Tradition.” *Foreign Affairs* 57, 1978.
- Sementko, H. A. & Valkenburg, P. M.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2000.



3. 기타

RFA 기자 P씨와의 인터뷰.

BBG Annual Report 2008.

<<http://www.bbg.gov/about/documents/BBGFactSheet2-09.pdf>>.

<<http://www.voanews.com/korean/categories.cfm>>.

<www.rfa.org>.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區域合作的新聯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저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저	20,000원
2009-16	200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국,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문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룡 외 공저
2009-02(I)	1)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저
2009-02(II)	2)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저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저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소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근,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P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 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미국 대북방송 연구 :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